

이영수 설교전집

# 에덴의 메아리

## 1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에덴의  
메아리 1

# 에덴의 메아리

---

**발행일** | 2011년 11월 1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전화** | 031) 562-7273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한국기독교에덴성회 <http://edenholychurch.or.kr>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224-6

ISBN 978-89-6449-223-9 (전 19권)

값 15,000원

---



저자 (1974년 당시)



**알곡성전.** 노아 방주의 절반 크기인 알곡성전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으로, 이 긴자가 이한 낮으로 성전에서 익은 곡식을 거두는 장소이다.(계14:14-16) 성전 전면에는 십자가 주위에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가 그려져 있고,(계8:2) 양쪽을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날아가는 그림이 있다. 종각 위에는 제사를 상징하는 향연이 형상화되어 있다.(계8:4)



**알곡성전 경내.** 성전과 부속건물

# Prologue

## “책머리에”

기독교란 요컨대 우리의 작은 목숨을 하나님의 큰 생명과 바꾸려는 거창한 업(業)이다. 우리는 잘만 하면 죽어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잘못 섬기는 사람을 심히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죽어도 사는 길—우리는 성경에서 이 길을 찾을 수 있고, 신앙 체험에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

성경의 저자는 차라리 성령—인간이 아니라—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이 성령의 도움으로 영계와 접할 수 있으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인생은 무한히 신비롭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중심의 신비주의

에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르는 튼튼한 은혜 줄기를 잡으려는 것이다.

무지는 신앙에서 더욱 금물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줄도 모르는 형제들을 가끔 목격한다. 자기로서는 큰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말씀’에서 애써 지혜의 양식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일 것이다.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매어, 때 묻은 믿음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을 신앙의 지조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을 보면 딱하다. 우리는 ‘말씀’과 신앙 양심 앞에 좀 더 수그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영수—그가 단상에 서면, 전에 누구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는 오묘한 진리가 터져 나와, 여호와와의 깊은 사정과 구원의 원리가 소상히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길에는 희한한 권능이 임하여, 닿기만 하면 악령의 세력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다. 왜 하필 그에게 이런 큰 권능이 임하는 것일까? 그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속4:6)

일찍이 ‘나는 왜 이렇게 총명한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반해 버린 철인(哲人)이 있었다. 그는 바로 ‘신은 죽었다.’는 폭탄선언으로도 유명한 니체이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 신은 특히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

이는데—그도 하늘의 것을 헤아리는 ‘총명’은 갖지 못하였다.

인간 이영수는 별로 배우지 못했다. 젊은 나이(33세)에 세상에서 밟힐 대로 밟히면서, 이 세대의 온갖 고초를 골고루 치렀다.—막노동, 일용품 행상, 정당의 사환(使喚) 그리고 연예계에까지 발을 적셔 왔으나, 이제 그는 그 악몽 같은 시련에서 불사조처럼 떨치고 일어났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그를 짐짓 그런 눈보라 속에 던져 키워 왔던가 보다.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던가.

그는 어디다 놓아도 결코 구겨지는 일이 없다. 그의 명량한 성격도 성격이지만, 인간됨이 그렇게 순박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두렵기 짝이 없다. 누구나 그의 눈에 자기의 정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혹시 몰지각한 친구들이 그를 도깨비로 몰아세워도, 그는 소탈하게 너털웃음으로 말아 버리기 그만이다. 악령을 무찌르는 그가 도깨비라면 “마귀가 마귀를 내쫓을 수 없다.”(막3:23)는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때에 따라 당신의 종을 땅에 보내어 역사하신다. 그리고 한 종의 사명이 끝나거나, 또는 여의치 않으면 다른 종을 내세우는 것이 상례이다. 예컨대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가 그렇고, 사울과 다윗,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가 그렇다.

이영수—나는 이 이름의 주인을 다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만 종합해 보아도 놀랍기만 하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하나님



의 종이 몇 사람이나 있었던가?

이 땅에도 일찍이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어떻게 퇴화 내지 변모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에텐의 메아리는 이에 대하여 대답해 줄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하는가—이 밖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하여 대답해 줄 것이다.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에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슌14:7-8)라고 했다. 그는 이 땅의 한 모퉁이에서 자기를 따르는 양 떼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여 주고 있다. 그 후 몇 달이 안 되어, 주를 뜨겁게 사모하고, 주와의 거리가 현저히 좁혀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이보다 더 큰 은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뇨?”(슌4:10) 앞으로 이 구령(救靈)의 새 역사는 범세계적으로 메아리칠 것이다.

에텐의 메아리는 그가 새로 단상에 선 지 다섯 달 남짓한 동안의 설교를 간추려 우선 한데 묶은 것이다. 여기에는,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감당키 어려운 말들’도 적지 않을 줄 안다. 나는 성경 기자와 같은 심경으로, 그가 터뜨린 말 한 마디를 놓칠 세라 조심스럽게 다루노라고 하였으나, 이렇게 종이에 옮겨 놓고

보니, 육성(肉聲)으로 듣던 때와는 판이하게 감이 빠진다. 그러나 이 에텐의 메아리처럼 영의 이야기로 일관된 설교집은 전에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혹시 이 책에 잘못된 데가 있다면, 그것은 내 무딘 붓끝의 탓이다. 뜻있는 제위(諸位)의 성원을 바란다.

1974년 5월 최현

# Prologue

##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은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 **(속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속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 **(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 **(속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 **(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라고 하셨다. **(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최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러들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책머리에 ... 06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11

*Part 01.* 아기별이 눈뜰 때

- 01 새날의 서장 22
- 02 여호와를 경외하라 30
- 03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37
- 04 알고 믿으라 42
- 05 하나님과 마귀는 어떻게 싸우는가? 50
- 06 한 때, 두 때, 반 때 57
- 07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1) 60
- 08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2) 67
- 09 영의 양식 72
- 10 시대와 예언 76

## Part 02.

### 성령의 길을 차고

- 11 여호와와의 경륜 84
- 12 영원한 그 나라는 언제 오는가? 89
- 13 영, 혼, 육 95
- 14 영광에의 길 100
- 15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109
- 16 할례(割禮)에 대하여(1) 115
- 17 할례에 대하여(2) 129
- 18 성령과 물과 피 151
- 19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156
- 20 물세례와 불세례 173

## Part 03.

### 승리의 대열에서

- 21 사단아 물러가라! 186
- 22 인(印)침에 대하여 198
- 23 남방여왕(南方女王)이란? 209
- 24 마음의 발을 갈라 214
- 25 하늘에서는 땅에 대하여 어떻게 움직이는가? 220
- 26 두 감람나무를 증거한다 243
- 27 흑암 속의 빛 253
- 28 부활에 대하여 267
- 29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283
- 30 내가 걸어온 발자취 295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Part 01.*

# 아기별이 눈 뜰 때



01 새날의 서장 · 02 여호와를 경외하라 · 03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 04 알고 믿으라 · 05 하나님과 마귀는 어떻게 싸우는가?  
· 06 한 때, 두 때, 반 때 · 07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1) · 08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2) · 09 영의 양식 · 10 시대와 예언

## Chapter 01.

# 새날의 서장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모임을 가진 이 자리에서 나는 감개가 무량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여러분을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따로 모아, 목이 터지라고 외쳐야 하는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아울러 주의 종의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악의 세력을 꺾어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는 동시에, 이 죄악 세상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려는 당신의 크신 경륜을 이루기 위해, 과거 6,000년 동안 수시로 당신의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들이 맡은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여 주시고 지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들어 쓰셨지만, 그 종들은 여호와와의 지시대로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갖은 환난을 당하고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음성을 통해 직접 하늘의 오묘한 법도와 제사법 등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당시에 모세밖에는 이 법도와 제사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못사람들에게 그러한 제사법을 알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을 치게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제사하는 광경을 본 그대로 전하여 실시하게 한 것이 바로 첫 언약의 제단입니다. 당시의 제물은 송아지, 양, 비둘기 등이었습니다. 즉 어떤 죄과에는 어느 제물을 어떻게 바치라는 법도를 정하신 대로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 드리면, 그 제물의 피만큼 자범죄가(원죄, 유전죄가 아니라)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워낙 방대하므로 한두 사람의 종에게 선포한 법도를 가지고는 다 이루실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또 종의 그릇에 따라, 맡기는 사명이 각각 달

랐습니다. 당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은 애굽에 매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지연되고, 또 지연되어 장장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모세는 동족을 이끌고 광야를 헤매야만 했으며, 자신의 불찰로 인해, 영도자인 모세 자신조차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내세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려고 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 국민에게 매여 사는 것이 가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물론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다 더 중요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요, 따라서 그 법에 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한편, 그들을 통하여 영광과 제사를 받으시고자, 모세를 그들의 영도자로 삼은 후, 친히 모세와 같이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죄를 범하게 되자(민27:14) 모세를 물러나게 하시고, 대신 여호수아를 내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둘에 새긴 10계명, 곧 모세의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유효



하였으나(마11:13)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산 제물이 되신 후에는 하늘의 법도가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자유의 율법으로 바뀌었습니다.(히8:10) 그러면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든지 빈 손 들고 나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보내 주신 성령을 받게 되면, 자유율법에 따라 자신이 선악을 헤아려 행하게 됩니다. 모세는 10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반포하였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아 남에게 부어 줄 수 있는 종, 즉 이긴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의 말이 그대로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불과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킬 때에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율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오늘날 그대로 성경이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잠깐 베드로와 바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맡기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마16:19)라고 할 만큼 베드로에게 거의 절대적인 권세를 부여한 것은 가능하면 당대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신 후에,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을 대적하여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들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삼고, 과거 수천 년 동안 실시해 오던 법도와 율례, 즉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폐지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땅 위에서는 일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로 말하자면, 주님도 나신 지 8일 만에 친히 받으셨던 것인데, 이 율례를 바울이 필요 없다고 말하니,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갈5:11)

바울의 이런 주장은 물론 주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즉 같은 성신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함께하였지만, 바울에게는 다른 지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아는 것만이 주의 올바른 가르침인 줄 알고 있던 사도들과, 그 밖의 은혜 받은 무리들은 바울을 과거의 사울로만 알고, 그의 말을 믿기는커녕 반박하고 반대하였습니다. “아니, 저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 아니냐!”면서 야단들을 하였습니다. “저런 자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라는 등, 별의별 비난의 화살이 바울에게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예언한 자는 다음에 예언하는 자가 나오면 입을 봉하고 잠잠해야 한다.”(고전14:30)라고 말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드러내어 여러분에게 들려 드리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결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수년 동안 애써 주께 매달리면서 받은

바 그 은혜를 몰래 간직하고 쌓아 오는 가운데, 주께서 고난당하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 주시기에, 더욱 주님을 뼈저리게 사모하게 된 결과입니다.

부친이 오랫동안 중병에 시달리던 끝에 가산을 탕진하고 세상을 떠나신 후에, 학업도 중단하고 어린 동생들의 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면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고달파서, “주님, 저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의 밑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까? 제가 이 은혜를 차라리 몰랐었다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 괴로움을 주님 외에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원망 섞인 어조로 주님께 고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나로서는 생존을 위해 목숨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호소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길을 열어 주십시오!”하고 나는 주님에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973년 3월에 접어들면서 생활에서 오는 고통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지시가 왔습니다.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여라.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즐거워할 것이며, 네 말을 듣는 자마다 기뻐할 것이다.”하고 이상 중에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설사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할 일이 없어 내가 이 괴로운 멍에를 메고 나섰겠습니까? 주님이 시키시므로 나는 그 기계가 되어 움직일 뿐입니다. 이 단상에서 아무리 핏대를 올리며 외쳐 봤자 허수아비와 같이 은혜가 없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게다가 여기 모인 분들은 신앙 연조나 은혜 체험에 있어서 거의 다 나보다는 훨씬 선배 되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시일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적대 세력이 몰아치리라는 것을 보여 주심을 받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주저할 수 없는 것이, 주께서 지시하신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나에게 닥칠 재앙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해 두지만, 이 역사는 인간 이영수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 해 동안 고락을 같이하던 사람들도 나를 인간 이영수로만 알고 있다가, 나를 통해 은혜 체험을 하고 달리 보게 되면, 나와 동거하던 청년도 잠자다가 내가 이상 중에 여호와를 뵈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이영수 개인의 의사로 하는 일이라면 얼마 못 가서 곧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마7:16)는 말씀 그대로,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진리와 되어 가는 역사를 보면 바보라도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수십 번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세계의 것을 알고 있으나,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입장이라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세계만방에 증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 깊고 오묘한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여 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계1:3)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개회 집회에서)

## Chapter 02.

#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계에서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동경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에게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사람을 통하여 내리는 성령의 은혜와 근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이 같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어떻게 다른지 알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 당시에 계명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계명이란 헌법과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도이며, 율법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법을 주셨지만, 주의 피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고 나면, 그 계명과 율법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시대에 여호와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지상에 장막을 세우고, 성소와 지성소를 마련하여 진설병을 차려 놓고, 등대에 불을 켜 놓고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에 제일 중요시한 제사는 ‘번제’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레1:2) 대개 송아지나 양 같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잡은 송아지나 양은 장작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며, 그 제사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어야 제사를 드린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법은 물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일이 지시하였으며, 따라서 그 지시대로 제사를 드려야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사 지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사를 지내서는 그 제사가 여호와에게 상달 되지 않고 헛수고에 그치고 맙니다.

상달이 되지 않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네, 모태에서부터 믿었네,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고 냉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을 시켜 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귀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다음에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레2:1) 이 제사는 사람들이 거

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 곡식을 불살라 그 향기를 드려, 제사가 여호와께 상달되면 그 향기만큼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레3:1) 죄를 지어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삼는데, 기름기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인 고기를 먹은 만큼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짐승의 고기를 제물로 드려 그 제사가 상달되면, 그 고기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이 있다.”(요6:54)고 말씀하셨는데, 이 살이나 피는 산 제물로 드려진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혜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의 살이나 피를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에 의해 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새 언약이 필요할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히10:1)

구약시대 절기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적을 행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 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날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적에,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셨고, 그 집들만은 제외



하였던 것입니다.(출12:23)

이것은 피의 원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럼 이 원리가 오늘 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늘에서 어떻게 인간들에게 은총을 베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옛날의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세, 다윗을 아무리 논해 봐야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월절에 이어서 칠 일간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내게 된 것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거둬들이고, 곡식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날을 기념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로,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곡식을 저장하고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광야에서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초막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제사와 절기 이외에 각자 그때그때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가령 누가 남의 돈을 훔내었다거나 남을 해쳤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 그 손해를 끼친 것보다 그 오분의 일을 더한 보상을 갖고 와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죄상과 형편에 따라서 송아지나 양 또는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일을 그래도 당시의 사람들은 곧잘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은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였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가령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눈이 하나 멀었다거나 하면 여호와께서 받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의 제사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히7:11-12) 즉 율법이 변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고 아론의 반차는 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사 직분과 율법이 변한다고 하였으며, 찬송가에도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다른 제사장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 제사장은 누구이며, 변한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요, 변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변하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요14:6)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

지자일지라도 ‘양의 문’인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헤아리던 다윗은 영적인 단계가 깊었던 고로, “내가 기다리오니,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적에 내 영혼이 무덤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하고 말했던 것입니다.(사16:10)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사 드린 바가 되어,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 피가 마지막 때 이긴자를 통하여 생수로 내리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은혜를 받아야 구원의 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계21:6-7) 그렇지 않고 지금도 구약시대의 율법이 그대로 존속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각자 자기 죄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잡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양, 또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들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빈손으로 나와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심정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적에 죄가 무너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저주받은 바가 되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내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런 은혜를 끼쳐 주는 이긴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 성령이 오면 마귀가

눈 녹듯 녹아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성령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주의 보혈의 깊은 사정을 드러내면 마귀는 가만있지 않고, 진리를 논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3:3) 하고 바울이 한탄한 것과 같은 광경을 오늘 이 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Chapter 03.

#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사41:8-9)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야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구약시대에 위대한 존재로 군림하였으며, 많은 선지자와 사사들이 야곱의 칭호로 예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의 아우였으며,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여호와와의 축복을 받았는데, 실은 여호와께서 당시의 백성들을 육성하기 위해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했던 것입니다.(창25:23)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잘

때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내리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창28:14-15) 하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자 감격한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앞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간구하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것처럼 자기도 여호와 앞에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서 있는 장소가 하늘과 연결되는 것을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축복을 위해 압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어긋나기까지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었으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창32:28) 이 칭호는 후일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세운 나라의 칭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호칭인 이스라엘이란 이겼다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창35:10)

이 야곱의 아들 12명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적에 작은 부족 사회를 이

루고 있는 서른한 나라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 후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은 막을 내리게 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형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사41:14) 이 말씀대로 장차 야곱과 같은, 즉 지렁이 같은 사람을 찢어서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만들어 산을 부스러기로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사41:15) 타작 기계는 알곡을 거둘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 그 타작 기계로 산을 친다는 것은 죄악을 소멸시키는 사명을 말합니다. 즉 죄를 소멸시켜야 알곡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계14:15) 하는 낫과 같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곡을 거두는 사명을 받는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긴자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야곱과 영적인 야곱이 이루는 역사는 어떻게 해서 끝이 나게 됩니까? 육적인 야곱이 이룬 역사는 열두 아들을 낳아 그 후손들로 열두 지파를 형성하여 완성하였지만, 영적인

야곱인 이긴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권세를 받아, 각 지파마다 만 이천 명씩, 십사만 사천 명으로 구성되는 영적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룹니다.(계7:3-4) 그러므로 이사야서 41장에서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어 죄를 무너뜨리는 타작 기계의 역할을 하는 야곱과 요한계시록 2장에서 감추었던 만나,(계2:17) 즉 주의 보혈을 받아 죄를 씻어 주는 이긴자는 같은 존재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 야곱의 열두 지파들과 같이, 한 지파에 각각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의 의로운 수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야곱이 압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것처럼, 주의 시험을 이긴 이긴자는 영적인 야곱,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고, 인치는 사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감람나무(속4:3, 계11:4)라고 하며, 이 감람나무는 하나가 아니라 둘로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첫째 감람나무의 사명이 끝나게 되면, 열매를 거두는 둘째 감람나무가 이어받아서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처음 감람나무는 입을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고전14:30 참조)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사42:24)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세웠지만(사41:8-10) 그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는 쓸어버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렘11:15) 이 말씀에 보면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바로 여호와이며, 도둑에게 붙인 것도 여호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면 여호와께서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되, 또한 그 두려움도 알아야 합니다.

## Chapter 04.

# 알고 믿으라



세상에는 ‘성경도 사람의 손으로 쓴 글인데, 여느 책과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긴 성경도 사람이 쓴 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느 책과는 다릅니다. 성령을 받아 그 인도에 따라 쓴 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성령)이 우리에게 깃들어 일깨워 주지 않으면 읽기는 읽어도 그 뜻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얼마나 충만히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과 악령, 영력과 정신력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고 많이들 혼동하거나 오인하곤 합니다. 점쟁이들 중에는 실로 놀라우리만큼 남의 지난 일이나 현재 당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까지도 훤히 풀어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이것을 ‘미신’이라는 한마디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못 인

텔리 여성들이 즐겨 이런 술객들의 집을 드나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보다, 술객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신상에 대한 말이 한결 믿음직스러운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대 예언’이라는 책자에서도 저자가 이 마력을 크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몇 줄 훑어보았는데, 인류가 1999년도에 전멸된다는 대목이 이 책의 토픽거리지만, 그가 전신이 흐물 흐물하여 죽어 갔다는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악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자의 정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귀가 솔깃하여 큰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은혜 줌 받고 된 체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과 이야기를 나눌 때 걸핏하면 이른바 악령의 ‘세력’이 온다 하여 별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실은 매우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성령과 악령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더러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결들여, 이 세력이라는 것이 선입견의 조화인지, 악령의 장난인지 또는 성령의 지시인지 잘 분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 역사는 성령과 악령의 싸움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이 싸움은 세 단계를 거쳐 종말을 고함으로써 하늘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을 사이에 두고 육적으로 투쟁하는 싸움(사3:1, 대하 20:15, 신4:34 참조)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의 혼을 사이에 두고 겨루는 싸움(약4:7, 딤후4:7 참조)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대결하는 싸움(계11:7 참조)이 그것입니다. 첫째 싸움은 구약시대의 싸움이요, 둘째 싸움은 신약시대의 싸움이며, 셋째 싸움은 천 년 세계가 지난 후에 잠시 무저갱의 마귀를 다 끌어내어 완전히 박살내는 싸움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만에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6,000년으로 종말 지을 것을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인류 역사의 매듭을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와와 경륜을 계시로 받아 기록한 다니엘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 병이 날 정도였으므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는 마지막 때까지 봉해 두라고만 하였습니다.(단12:4) 그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일할 때가 되어야 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후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그 후손에게 살 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설사 지상에서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이 인간의 딸들을 좋아하여 육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멀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호와 제일 주의로 살다가 결국로 흘러 여호와를 대적하는 격이 되어 수명까

지도 줄어들었던 것입니다.(창6:1-3)

그럼 여호와께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육적인 싸움을 하던 구약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일일이 육적으로 인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죄악에 물들어 가자 의로운 당신의 종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홍수로 멸한 뒤, 그 자손들을 의롭게 사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여전히 죄악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가운데,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주어 당신의 백성으로 키워 오시다가, 당신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철이 들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어디까지나 육을 다스리는 법도로, 만일 ‘간음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자가 생기면 직접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싸움, 즉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로는,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히10:16) 이것이 곧 ‘자유의 율법’입니다.(약2:12)

그리하여 가령 간음을 다스리는 경우에 있어서도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법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대뜸 극형을 내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법도가 한결 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왔다.”(마5:17)는 주님의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내리던 성령과 신약시대의 그것은 그 강도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후로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일찍이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7:38)고 하셨는데, 이 생수로 비로소 우리의 자범죄는 물론 원죄와 유전죄까지도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속13:1) 구약시대에 드린 제사는 자범죄를 씻는 데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레4:20) 만일 구약시대의 제사로 원죄나 유전죄까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구태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피로 씻고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요14:6)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아담의 후손이었던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이 큰 죄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혼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즉 인간이 마귀의 술책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돌이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행3:21)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혼이 주님의 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야만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되어야만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 년이 차기까지 음부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계20:4)

성령이 혼 위에 덧입혀지면 아름다운 영혼으로 화하게 되지만, 이 혼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혼과 영이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이 마귀의 편에 속하여 때를 벗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의 성령과 합쳐지는 일은 자기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혼을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부어 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되지 않던 것이 이 손길이 한 번 닿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 씀으로 다듬고 손길로 씻어 세우는 역할이 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급선무는 혼을 씻어 영을 세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와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출33:19,

9:15)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찌면 하나님이 편파적이 아닌가 하고 잘못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이 모자라 베풀지 못하겠느냐?”(사50:2)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받아들일 만큼 우리의 혼이 깨끗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공흠을 베풀 자란 혼이 영과 합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어쩔 수 없는 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이 지저분하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와 같은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 드러누워 낮잠만 자면서 성령 타령을 한다고 해서 마구 주신다면 그야말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령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내 속에 당신을 영접할 수 있는 여건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하고 안타깝게 매달리십시오. 주님을 몹시 사모할 때, 그리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할 것이라.”(약4:8) 한 말씀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지면, 성령은 오시지 말라고 해도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마11:12)는 말씀도 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아니면 어



떨게 듣고, 들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믿으리오.”(눅10:14) 알지 못하고  
는 믿지 못하는 법입니다. 신령한 말씀을 듣는 데서 혼이 자라고,  
마음이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먼저 말씀 가운데 서  
야 하는 것입니다.

## Chapter 05.

# 하나님과 마귀는 어떻게 싸우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의 하나가 마귀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요컨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이 죽음의 주재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창세 이전부터 여호와와의 강적으로 균립해 왔으며, 인간을 내세워 이 대적을 박멸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싸워 오다가 이제는 매듭을 지을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적당히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려니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신앙 태도라고 내가 배격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덮어놓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고”(벧전 5:8)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양자의 싸움은 한결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 자세가 크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애절히 매달려, 주와 나 사이에 은혜의 생명줄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울 때 살아 계신 주님이 섭섭히 생각하며, 주님이 섭섭히 생각하면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보는 시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애써 마음을 주님에게 집중시켜 뜨겁게 사모하는 가운데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은 딴 데 두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여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생명줄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덤덤히 앉아 있다가 마치는 그런 예배라면 구태여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상은 여러분에게 직접 은혜를 부어 주는 곳이요, 씻어서 세우는 곳이므로 여러분 자신이 은혜의 체험을 피부로 느껴야 하며,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찬송 한마디를 부르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불러야 하며, 그 찬송을 하늘에서 기뻐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돌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자갈밭 같던 심령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믿는 자를 가리켜 ‘자녀’라고 말하고, “**훈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적

인 아내가 되어야지, 결코 주님을 짝사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짝사랑이란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 사랑입니다.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주님을 암만 사모하노라고 해도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짝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과 티가 없어야만 아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영과 혼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영혼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죽으면 혼이 떠난다, 또는 영혼이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혼과 영혼, 영과 영혼은 각각 다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생기를 부여 넣어 흠과 티가 없는 산 영이 되게 하셨는데, 죄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하지 못하고 육으로 흘러 혼을 지니게 되고, 끝내는 여러분이나 내가 이런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영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의 악령이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혼에 들어와 하나가 된 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온 인류를 죄인으로 삼은 것은 너무 가혹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영체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우리네와 같은 죄인의 죄와는 비중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가 후손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지 못했는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도 뜻대로 못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강적 마귀가 언제나 꾀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단 말인가 하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마귀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러나 강하다는 것과 상대방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국 우세한 하나님에게 승리가 돌아갈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 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상당한 힘을 갖고 있으므로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이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에 떨어진 조상을 첫째 아담이라 하고, 주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분 사이에는 대조적인 점도 있고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첫째 아담도 처음에는 둘째 아담과 마찬가지로 흠과 티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첫째 아담이 죄에 빠져 인류를 죄 가운데 몰아넣은 반면에 둘째 아담은 그 인류의 죄를 구속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떼어 내어 아내로 삼은 것처럼, 둘째 아담은 십자가를 지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그 피로 죄인을 씻고 아내로 삼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망을 가져다준 첫째 아담과 영생을 안겨 주는 둘째 아담을 구분 짓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사망에 들어갈 자와 사망에서 벗어날 자를 구분 짓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땅

이 고향이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이 고향입니다. 첫째 아담은 인류에게 사망을 안겨 준 실패의 장본인이요, 둘째 아담은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준 성공의 주인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산 영이 되었으나, 죄에 빠져 육으로 떨어졌고, 하나님과 마귀가 그 인간의 육을 가운데 놓고 싸움을 벌였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쟁이요, 이때 필요했던 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 피를 흘리고 나서 이러한 율례와 법도를 폐지시키고, 죄인들로 하여금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는 인간 속에 있는 혼을 가운데 놓고, 그 속에서 성령과 악령이 번갈아 들락거리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피를 흘려주셨다고 해서 아무나 그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아내가 되려면 그만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신부의 자격을 갖추 수 있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전15:44-45) 하는 말씀대로, 오늘날에 와서는 주님의 영이 이슬과

향취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호14:5-6) 이것은 살려 주는 영으로, 이 영이 없으면 주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계19:7-8) 어린 양의 아내뿐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계19:9) 그런데 신부가 세마포 옷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둘째 아담이 단장을 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그 영으로 단장할 수 있는 종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세마포 옷을 입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아무 예고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세상 결혼식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세상에서는 결혼식을 예고할 때 청첩장으로 하지만, 이 결혼식의 예고는 하늘과 땅의 징조로 합니다. 하늘의 아들과 지상의 아내가 혼인을 하는 이 크나큰 잔치를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서둘라고 재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징조가 있게 마련입니다.

천년세계에서는 마귀가 얼씬 못하도록 가두어질 뿐, 아직 그 세력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닙니다.(계20:3) 하늘나라가 임하려면 이 세력이 완전히 꺾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저갱 속에 남은 마귀 떼들을 모조리 풀어놓아 마지막 소탕전을 벌이게 됩니다.(계20:7) 이것이 곧 셋째 전쟁입니다.(계11:7)

앞에서 말씀드린 신랑과 신부의 혼인이 이루어지려면 세상이 끝장나게 되어 있으므로, 세상에 통침을 내게 됩니다.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단7:2-3) 이 네 마리의 짐승은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 주위에 대두된 4대 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눅21:25) 그때가 주님과 인간의 혼인 기약이 가까워진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늘의 신랑이 이 지상의 신부를 맞이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땅의 징조는 하늘에서 먼저 마련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바람이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계7:1-3) 그동안 이러한 말세론을 논한 자는 기독교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계2:17)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을 이긴자,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터트려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Chapter 06.

# 한 때, 두 때, 반 때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단7:25) 이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앞으로 될 광경의 일부를 여호와가 보여 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으로, 성경에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캐내려고 무던히 애써 왔으나, 누구도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에 하나님이 룰(규례)을 정해 놓고 일정한 조건 아래서 마귀와 겨룬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 룰 속에는 숫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섭리해 오는 동안에 땅에서는 4수로 이루고, 하늘에서는 3수로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궁궐과 광야의 생활을 한 것이 각각 40년이요, 탐정꾼

을 파송하였다가 돌아오게 한 것이 40일 만이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류한 것도 40주야이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는 동안 금식한 기간도 40일입니다.(왕상19:8)

다음으로, 3수는 성부, 성자, 성신이라 하여 하늘에서 사용하는 수입니다. 주님은 30세부터 전도를 시작하여 33세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증거도 성령과 물과 피, 셋으로 구분했고,(요일5:8) 영적인 전쟁도 첫째 전쟁, 둘째 전쟁, 셋째 전쟁으로 구분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천지가 캄캄하고 어두워진 시간이 세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눅23:44)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치면 7수가 되며, 성경에서는 이 7수를 온전한 수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이 울려 퍼져야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누가 아무리 떠든다 해도 주의 재림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곱 촛대, 일곱 천사, 일곱 별, 일곱 우레 등 7수가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수는 3수로, 땅의 수는 4수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고 할 때에, 하늘은 신랑이요, 땅은 신부를 나타냅니다. 하늘에 계신 신랑이 땅 위의 14만 4천 명의 신부와 혼인 계약이 이루어져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혼인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수를 합친 7수는 세상에서도 '러키세븐'이라고 하여 행복을 표시하는 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완성을 표시

하는 수로서, 마지막에 새 하늘나라를 완성할 때에도 일곱 인을 다 떼고서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경륜을 숫자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를 대적하는 마귀도 숫자적으로 움직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여호와를 잘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7장 참조)** 마귀가 여호와의 일을 가로막는 것도 숫자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성도들과 싸워 이겨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하였다가 승천하는 것도 3일 반 후의 일입니다. 즉 한 때, 두 때, 반 때를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아 그리스도와 인간의 연결을 끊어 버리려면 땅도 아니요, 하늘도 아닌 중간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를 합친 수의 중간 수로 마귀는 꾀방을 하게 되는데, 이 수가 곧 한 때, 두 때, 반 때인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 있는’ 동안도 한 때, 두 때, 반 때이고, 두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날짜도 1,260일, 즉 3년 반, 곧 한 때, 두 때, 반 때입니다. 이 시일은 마귀가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의 바깥마당, 즉 측량하지 않은 마당을 이방인에게 준 것도 42달, 곧 3년 반, 다시 말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입니다.

## Chapter 07.

###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1)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요15:26-27)

이 말씀은 주께서 평소에 하지 않고 계시다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미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만 하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땅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로마에 눌러 사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성령인데, 성령은 곧 진리라고 하였습니다.(요일5:7) 그리고 다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것은 성

령과 물과 피라고 하였습니다.(요일5:8) 그러면 이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은 어느 성령에 속할까요? 그것은 피의 성령입니다.

이 피의 성령이야말로 다른 세대에서는 볼 수 없고, 주께서 피를 흘려 승리하신 까닭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피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혜사 성령, 즉 피의 성령은 주께서 흘리신 승리의 핏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오늘날 어떻게 성령으로 내리는가? 그것은 주의 종을 통하여 이슬과 같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호14:5) 이 이슬과 같은 성령이 오늘날 이긴자를 통하여 내리며, 마음문을 열고 예배 보는 여러분에게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혜사가 사람에게 연결되면 어떤 작용을 할까요?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는 먹으면 배가 부르고 힘이 났으나, 결국에는 그것을 먹어도 다 죽음에 이르렀고, 오늘날 주께서 주시는 감추었던 새 만나는 먹어도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것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이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

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16:12-14)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주님 생존 시에도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살게 한다고 했으니,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또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호와와의 큰 종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이나 야곱, 소돔성의 롯, 모세, 다윗, 엘리야와 같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사가 나타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지시하였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주님이 일일이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를 택하였을 때 하나님이 불꽃 중에 나타나신 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육적으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가령 모세가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든 것이라든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게 한 것이라든지, 모두가 육을 살리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터뜨린 것은 주님이 그들과 헤어져야 하므로 혹시 실족이라도 할까 염려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동안은 눈만 뜨면 주님을 마주 대할 수 있었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의 대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테지만, 내가 가면 그를 보내겠다.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요 16:7-8)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옆에 계시지 않으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문을 잠가 놓은 방에 주님이 척 나타나시자 자신을 얻어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또 겁이 더럭 났던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나 엘리야 혹은 다른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대면한 후 얼마 지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자연히 약해지므로 여호와께서 또 가까이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직접 분주히 움직이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인간을 통하여 마귀와 몸소 싸우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신 신도 성신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보았을 때에는 주위가 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신의 조화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힘을 주거나

어떤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너희가 주께서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리라.”(요일 2:20, 27)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젠 천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율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는 성신과 물과 피, 셋 중에서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 곧 주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속죄의 제물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셨으나, 주님이 피권세로 이기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로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준 요한의 물세례는 신, 구약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후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요7:38)라고 하였는데, 주님 당시에 이것이 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연고’이며, 따라서 주께서 영광을 받은 후에야 되는 역사입니다. 성신으로 역사한 구약시대나, 물세례



로 역사한 과도기나, 또는 신약시대에 보혜사로 내린 성령의 역사가 다 세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왔을 뿐, 모두 여호와와의 것이므로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와서 점잖게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신입니다. 모세가 받은 성신은 모세가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는 데만 유용한 성신이지, 마귀를 건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마귀 새끼 한 마리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귀 들린 자들이 성신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술객들의 마귀도 내쫓지 못한 모세와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거나 태양을 멈추게 한 선지자라고 해도 죽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보혜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보혜사를 받을 수 있는 세대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세대에 사는 사람 사이에는 은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육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요14:9)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보혜사를 받으면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요14:20)는 것도 보혜사 성령의 조화

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한 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을 받으면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정하면 정해진다.”(요20:23)는 말씀도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사람이 육으로 돌아가 성신이 떠났다고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거꾸로 성신이 사람에게 임하여 한 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속에서 신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그릇이 깨어져도 그 속에 담긴 보화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육의 장막은 없어져도 그 속에 거하는 영혼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Chapter 08.

#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2)



오늘날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주를 찬양하는 이 순간에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 죄를 깨끗이 도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을 예정하여 이루어 나가는데, 수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러저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지키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지.’ 가령 ‘성경에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겠지.’ 하고, 10년, 20년, 때로는 모태에서부터 믿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 왔다 하여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보혈을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죄를 깨끗이 씻지 않으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

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요6:53)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약속하신 보혜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는지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가운데, 그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고, 역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족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슬과 향취가 쏟아져 내리고, 뜨거운 불이 임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쫓개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선지자들도 심심찮게 나타나며, 저마다 받은바 은혜를 앞세워 자칭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치고 있고,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양 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가 참 목자인지 아닌지 분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였습니다.(요8:16)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자기가 미처 모르고 있던 지난날의 죄를 낱알이 뼈아프게 느껴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며, 설움이 북받쳐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즉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고 책망하여 회개하게 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에서 놓여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하신 대로, 그 성령을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알 수 있게 되며(고전2:10) 예언을 받아 앞으로 될 일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주께서 이 사람에게 지시를 주시고 새 일을 맡기셨지만,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사명은 힘에 겨워, 몇 번이나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너를 내세워 하는 일이니 순종하라.”고 하시기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나와서 외치며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나타날 적마다 으레 그렇듯이,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며 별의별 중상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눈 하나 까딱할 내가 아닙니다. 시일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신다고 말씀한 대로, 모든 일은 당신이 친히 맡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당해 나갈 엄두가 생기고, 또 실제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 내 힘을 의지하였다면 며칠이나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주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이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따지는 동안에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확고히 서서 주를

사모하며, 그 피가 아니고서는 자기 피를 깨끗이 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준행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불이 오거나, 바람이 스쳐가는가 하면, 향취가 나고, 좀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도달하면 입안이 달콤하며 목이 시원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더욱 애절히 매달리며, 한 생명이라도 더 인도하려고 힘쓰는 사람에게는 다음 단계인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깊은 말씀을 쪼개어 양 떼들에게 먹여 주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을 굳건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기성교회에 다니다가 처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같이 생각한 사람들도 이 중에는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며, 구원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제 일주의로 살며 매달려 보십시오. 성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가짜입니다. 지난날에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는데, 이미 마귀도 그 내막을 알아차리고 있으므로 지금은 그때보다 몇 배나 강하지 않으면 일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이 사람을 통하여 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에 은혜 체험을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도 남

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팔짱을 끼고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져 입속에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신앙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분발이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 Chapter 09.

#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즉 산 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창2:7)** 우리는 이 영체를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숨을 거두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사흘 전의 주님과 전혀 다른 몸으로, 즉 영체로 화하여 문을 꼭꼭 닫아 놓은 방에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잠시 나타나 보였다가는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40일 동안이나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죄 짓기 전에는 그런 영체로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아담, 하와가 우리와 비슷한 육체를 지니고 있었다면 흙과 티가 아주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육을 입은지라, 하늘의 존재이지만 때로는 죽음 앞에서 약해지기도 하고 시장기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창업을 훼방하던 마귀는 영체로 지어 놓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공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린 하나님은 선악과의 열매는 따 먹지 말라고 아담, 하와에게 신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과일은 먹을수록 힘이 솟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지만, 선악과에는 마귀의 독소가 들어 있어 아담, 하와를 해치는 동시에 여호와를 등지고 죽게 되게끔 마귀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마귀의 권세도 강하여 하나님의 흥내를 거의 다 냅니다.(출7:12 이하 참조) 그리하여 마귀는 죽음과 이별과 눈물이 없는 에덴동산에 침투하여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겨룰 기반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악령의 권세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순식간에 마귀를 처치해 버리고 여호와의 뜻대로 척척 다 이루시지, 아마겟돈 전쟁까지 치러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앞에서, 선악과에 독소가 들어 있어, 영생할 수 있게끔 영체로 만들어진 인간이 죽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눈이 밝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따 먹은 즉시 독소가 몸에 퍼지면서 영체에 악신이 들어가, 여호와의 생기에 넘치던 그 눈에 마귀의 요소가 침투

하여, 눈이 밝아져 새로운 현상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는 이긴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계2:7)** 낙원이란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동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생명과일을 먹을까 봐 쫓아내고 천사를 시켜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왜? 악령이 침투되어 있으므로 아담, 하와가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하며 악령의 조화로 여전히 여호와의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는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침투하였기 때문에 쫓겨났으며, 반대로 이긴자는 주께서 생수로 죄를 씻고 마귀를 쫓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친다.**” **(요7:38)**고 말씀하였지만,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기 전에는 생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부어 넣었던 생기와 모세나 엘리야, 에스겔, 호세아 등 여러 선지자들에게 같이했던 성령과는 달리, 다른 보혜사 성령은 그 능력과 사명에서 다릅니다. 창세기는 여호와께서 인간을 지었다가 실패한 기록이요, 요한계시록은 더러워진 땅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늘과 땅을 두루마리같이 말아 사라지게 한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경위의 기록입니다.

생수를 받아 진실하게 믿음을 가꿔 나간 사람은, 스테반이 순교하고 직접 주께 간 것처럼, 직접 그 뿔기세탁의 반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가 아론의 반차에서 뿔기세탁의 반차로 달라진 것입니다. 열심히 매달려 보십시오. 반드시 그 성령은 내

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울부짖을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힘도 쓰지 않고 저절로 될 줄 알았다가는 오산입니다.(마11:12 참조) 여러분은 오늘날 이영수를 통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아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 Chapter 10.

# 시대와 예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과거 6,000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그 시대에 알맞은 예언을 하고, 각자 여호와로부터 맡은바 사명을 이룬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도 사람에 따라 다 이룬 분, 덜 이룬 분, 또는 이루지 못한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아브라함 당시를 비교할 때 인지와 사회 발달에 차이가 많았으며,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700년 후의 모세 당스와 그 후 약 500년이 지난 이사야 때도 문명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형편에 맞게 이루어진 일들을 성경에 다 소상히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예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성경에는 단지 “예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이 세상에

없더라.”(창5:24)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말4:5)고 하였는데, 세레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약대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띠고,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즉 메시아가 태어나는 날보다 6개월을 앞당겨 주님의 길 예비자로서 엘리야, 곧 세레 요한이 왔지만 그는 주님을 의심하여 떨어졌습니다.(마11:11)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계속 돌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당대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창4:14)

당시에는 사람의 수명이 매우 길어 보통 몇 백 살을 살았으며, 오늘날처럼 산아 제한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별 노력도 하지 않고 자연이 주는 것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었으므로 이들이 하는 일이란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이 자기네들끼리 사랑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줄였습니다.(창6:3)

가인, 아벨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무척 길어, 이미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지만,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에게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기록할 수도 없었지만, 또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40주야를 산에서 기도할 때 수천 년 전의 일들을 여호와로부터 계시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며, 모세 때는 아브라함 때보다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보다도 한결 문화가 발달한 이사야 선지 때는 주님이 나시기 약 700년 전이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이므로 모세 당시보다 조금 나을 정도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중에는 당대에 해당되지 않은 먼 장래의 예언도 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더해지고 빨리 왕래한다.”(단12:4)는 다니엘의 말은 이사야나 예수님 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방향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이후 약 2,7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전파 신호가 1초에도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이나 도는 빠르기로 소식이 전해지는 형편이며, 무전기 하나만으로도 세계 방방곡곡에 새로운 소식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미개한 시대에 예언한 것과 오늘날 현대 문명 시대에 이영수가 마이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 사이에는 방법상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나 문명이 이와 같이 다르면 하늘에서

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이런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7:14)고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당시로서는 기적이 되지만, 인공 수정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적인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군대와 싸울 때 지팡이를 들고 나가 싸웠으나, 지금은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총으로 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당시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지만, 지금은 큰 배들이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권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사11:1-2) 하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사40:3) 하고 길 예비자가 나타날 것도 예언하였는데, 모두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나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나타날 만한 시대가 된 고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한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세대가 지나가도 안 되고, 그전이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친다고 한 것은 곧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킨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요1:23) 그러니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요, 그 예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예비’한 사람이, “내가 가서 무엇이러 외치리까?”하고 물으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했을 때 여호와와 더불어 불기 때문이라.”(사40:6-8) 즉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불면 꽃은 시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들어 버리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타날 때의 백성들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주인공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의 가치도 보잘것없는 풀과 꽃 같아서 시들어 버리지만 여호와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동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였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마23:37, 눅13:34) 하였고, 설교하실 때에는 성경에 예언된 것을 지적하여 당신 자신을 증거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이 구약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였습니다.(눅24:32) 하나님의 크신 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덮어 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갈 길을 밝히 알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과 친척 관계에 있었으며, 주님보다 6개월쯤 먼저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이를테면 형뻘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났으므로 자라는 동안에 서로 내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한쪽은 억대의 부자이고 한쪽은 매우 가난한 두 친척이 있어, 전자는 고급 요정에 드나들고 후자는 50원짜리 국수집을 찾는 처지라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레 요한과 주님은 피차 서먹서먹한 사이였지만, 모테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터이므로 주님은 자기보다 먼저 올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세레 요한도 자기 후에 올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가 되어 광야에서 물세례를 주면서 외치는 자를 보고 주님은, ‘아하 저이가 그로구나.’ 하였으며, 세레 요한도 자기가 세례를 주는 자 중에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자를 보고 깜짝 놀라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여호와께서 계획하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길 예비자도 없이 혼자서 역사하시려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나 사도 요한도 다 세레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레 요한을 통하여 귀가 아프도록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온 자가 나중에 온 자를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주님 당시에 그 시대 조건이 맞아야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다니엘 선지가 예언한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세대라야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짐승이라 함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들이라 했습니다.(단7:17)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넷으로 갈라질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한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니엘이 말한 하나님의 묵시를 터뜨릴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4대 강국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저 역시 3년 전부터 하나님께 상세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때가 되었기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오.”(롬10:15)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조건이 맞지 않고서는 그 예언을 잘 알 수 없으며, 또 설사 내용을 알고 그대로 외쳤다 해도 그 세대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해야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언제든지 조건을 맞춰 주는 것입니다. 만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가서 핵폭탄 소용없다고 전하여라.” 하고 지시하여 이사야가 그대로 해 봐야 당시의 사람들은 핵폭탄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으므로 이사야를 가리켜 미친놈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 이영수가 나가서 이사야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운운하거나 지팡이와 창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한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나를 정신병자라고 욕할 것입니다.

Part 02.

# 성령의 검을 차고



11 여호와와의 경륜 · 12 영원한 그 나라는 언제 오는가? · 13 영, 혼, 육  
· 14 영광에의 길 · 15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 16 할례(割禮)  
에 대하여(1) · 17 할례에 대하여(2) · 18 성령과 물과 피 · 19 모세는  
왜 가나안땅에 못 들어갔나? · 20 물세례와 불세례

## Chapter 11.

# 여호와의 경륜



인류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즉 역사의 원동력이 무엇  
이냐 하는 물음에 크게 세 가지 입장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정신으로 보는 인도주의적인 역사관이고, 둘째는 경제력  
이라고 보는 소위 유물사관적(唯物史觀的)인 공산주의 역사관이  
며, 셋째로 하나님과 마귀의 투쟁 과정으로 보는 기독교적 역사  
관이 그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세 번째 역사관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생각  
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두 역사관은 역사에 대한 피상적인 관찰  
에 비롯된 것이므로 별로 문제 삼을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인  
간의 물질적인 여건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없  
으며, 인간 정신도 알고 보면 배후에 여호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  
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구성 원리가 이원적(二元的)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마귀요, 윤리적으로 보면 선과 악이며, 우리네 동양 철학적으로 보면 음(陰)과 양(陽)이요, 성적(性的)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 등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것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마귀의 대립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양자는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었으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로 부단히 투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토록 유래가 가장 깊고 끈질긴 대립과 갈등이 곧 하나님과 마귀의 그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면 유사 이래로 오늘날까지 양자 사이에 전개해 왔고, 지금까지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개할 싸움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로 하늘나라가 임하기 바로 직전으로 구분해서 첫째 싸움, 둘째 싸움, 셋째 싸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오늘날은 둘째 싸움의 시대라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은 우리의 혼을 두고 하나님과 마귀가 일종의 3각 관계를 이루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인간에게는 자유가 허용되어 있으므로 마귀에게 가담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혼을 되도록 당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마귀는 마귀대로 자기편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갈등과 번민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갈등의 가장 큰 소용돌이를 경험한 사람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함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통7:24) 하고 부르짖은 바울이 아닌가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마귀의 어느 한 쪽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나무토막을 양쪽에서 톱으로 쳐듯이 하나님과 마귀가 사람들 사이에 두고 서로 잡아당기면서 실랑이를 벌이기 때문에 이런 번민과 괴로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싸움에 반드시 룰(규례)이 있어 이것을 넘어서지 않는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가령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울 때 국제법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국제법이 룰, 곧 규례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에는 선전 포고에서 강화 조약에 이르기까지 규정에 따라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싸움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싸움이 세 번으로 구분된 것도 그렇고, 주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렇지 못한 자가 마귀의 편에 서는 것도 그렇습니다. 즉 정결한 자는 마귀가 못 데려가게 되어 있고, 정결치 못한 자는 하나님이 못 데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이고 살리는 싸움이라도 거기에는 지켜야 할 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다는 모릅니다. 전략상 만세 전에 정해 놓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

다. 그리하여 이 비밀은 성경에서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인봉(印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봉한 하나님의 비밀은 때가 되어 뿔 자가 나타나야 알게 되어 있습니다.(단12:9) 자고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직접 나서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당신의 종을 내세워 합니다. 선지자나 사사, 또는 사도들은 다 이런 여호와와의 일꾼입니다.

성경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종들을 내세워 당신이 영음과 계시로 지시하여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귀를 전멸하기 위해 미리 예정해 놓은 경륜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예정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호와의 깊은 경륜을 예정한 것이지, 구체적인 자연인(自然人) 김 아무개나 박 아무개를 구원시킬 것으로 딱 점을 찍어 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5) 여기 ‘우리’는 구체적인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누구나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우리’ 속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나타나 14만 4천에 속할 수 있는 의로운 자를 다듬어 세우고,(계7:3) 주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세계를 이룩한 후에, 무저갱 속에 가두었던 마귀를 다 끌어내어 한 때, 두 때, 반 때, 즉 3년 반, 곧 1,260일을 지나, 아마겟돈에서 격전을 벌인 끝에 마귀의 세

력을 완전히 소탕하고 나서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여호와의 크신 경륜입니다.

주를 위해 목 베임을 당한 순교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설사 생전에 하나님을 잘 믿어 그 이름이 생명책들에 기록되어도, 천 년이 지날 때까지는 일어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대적은 셋째 전쟁에서 소탕되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므로 저희를 이길 것이요.”(계17:14) 이때 하나님의 군병은 ‘부르심을 받고 빼냄을 입고 진실하게 산 자,’ 즉 순교자들입니다.(계17:14, 20:4)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 여호와의 군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싸움에서 마귀를 소탕한 뒤에 음부에서 일어나 구원을 얻는 자들은 덤으로 여호와의 은총을 입을 뿐, 이 군병이 누리는 영광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왕 노릇하는 의(義)의 왕들입니다.(계 22:5)



## Chapter 12.

# 영원한 그 나라는 언제 오는가?



인류의 시초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은 자고로 많은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거듭해 온 수수께끼의 하나였으며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인간의 머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못 박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론상의 난점이 없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대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며, 그 예언들이 다 적중했다는 데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또 하나의 물음은,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은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고 하니, 인류 역사는 앞으로 대대손손 끝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

긴 근자에 와서 핵무기니, 공해니, 인구 폭발이니, 해서 낙관만 하고 있지 않는 모양이지만, 그래도 인류의 양식(良識)과 과학의 발달로 역사는 그러저럭 오래오래 꾸러 나가게 될 것으로 알고, 적어도 몇몇 세대 사이에는 별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하여 부정적입니다. 즉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앞에서 성경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걸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증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들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위시하여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은 다 적중되었습니다. 예컨대 주님의 탄생이 그렇고, 십자가의 처형이 그렇고, 부활이 그렇고, 다른 보혜사 성신도 그렇습니다. 이 밖에 앗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이며, 유대 민족의 유리방황과 회복, 바벨론의 영구한 황폐화 등등 일일이 그 예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견들이 구구하여 적지 않은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즉 ‘역사에 종말이 있느냐? 있다면 언제 있느냐? 또 그것은 어떤 형태로 종말을 고하며,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인식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6,000년 동안 감춰 둔 비밀이 수두룩하며, 이것은 때가 되어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은 종이 터뜨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였다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4-36)고 한 이 말씀을 읽고, 의아스럽게 생각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를 모르다니,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당신의 관여할 분야가 아니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묘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 같은 분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을 기록하면서 도 무슨 뜻인지 몰라 천사에게 질문하였는데, 마지막 때까지 봉해 두라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터뜨릴 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사람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상대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것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신을 충만히 받은 당신의 사람을 들어 지시해 왔습니다. 성신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고전2:10)

그럼 인류 역사는 어떻게 종말을 맺으며, 그 후에는 어떻게 되

느냐? 이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단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중복된 말을 피하고 간단히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은 죽어서 승천했다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오겠다.”(마24:34)고 하셨는데 왜 그 예언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은 덮어놓고 아무 때나 오실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죄악 세상에 오신 초림(初臨) 때와는 달리, 부활하여 정결한 영체로 화한 주님은 이긴자가 나타나 만유를 회복할 정지작업을 마칠 때까지 불가불 하나님의 우편에서 때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시110:1) 즉 이긴자가 일정한 의(義)의 수를 채워야만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계14:16)

그리하여 이 숫자가 차면 이들은 주와 더불어 천 년 동안 기다렸다가 무저갱 속에 가둔 모든 마귀를 다 끌어내어서 여호와의 마지막 소탕전, 곧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마귀를 일소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의 앞장을 서는 존재가 곧 두 감람나무이며, 이들은 사흘 반 동안 죽음을 당하였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계11:7, 11-12) 이 싸움에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 무찌른 후에 비로소 영원한 하늘나라가 열리고 이 죄악 세상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만세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싸움에서 재림하신 주님은 잠깐 몸을 피하며,(계12:6) 두 선지

자가 죽임을 당하는 싸움터는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부릅니다.(계11:8) 이런 슬픈 예언을 해야 하므로 두 하나님의 사람은, 주를 맞을 때 기쁨을 상징하여 가는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는 달리,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계11:3) 성경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마24:15)는 것은 이 세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마귀가 에워싼 광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開國)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단12:1-4)

이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자는 자(죽은 자)들이 깨어 영생을 얻는 것이 곧 둘째 부활이며, 순교자와 의로운 자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소생하여 주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계20:5) 즉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하게 산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계17:14)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계20:4) 이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요.”(고전15:52)라고 한 말씀이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를 너무 순박하게 믿는 사람들은 대개 누구나 살다가 죽으면 금세 천당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비성서적인 생각입니다. 천당과 지옥은 셋째 전쟁이 끝난 연후의 이야기며, 그때까지는 누구나 죽으면 음부에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계6:8, 20:13) 물론 여기에도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목 베임을 당했거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 온전히 이루어진 자에게는 하늘 군병이 되는 첫째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마지막 싸움에서 마귀를 완전히 소탕하여 이 사망 권세를 꺾어야만 영원한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 Chapter 13.

### 영, 혼, 육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보존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책망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전5:23)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느 신학자도 구분 짓지 못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첫 번째는 구약시대의 육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신약시대의 혼의 싸움이며, 세 번째는 14만 4천의 의인(義人)의 수가 차서 천 년 세계가 이루어지고, 하늘 군병의 훈련이 끝난 후, 마귀를 무저갱으로부터 다 내어놓고 나서 벌이는 성령과 악령의 싸움으로, 이것이 이른바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먼저 몸과 혼과 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몸인 육체는 흠으로 빚었으므로 흠으로 돌아가고, 둘째로 혼은

본래 영, 즉 생령(生靈)이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혼으로 전락하여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으며, 셋째로 영은 여호와 의 것이라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를 지니고 있는데, 이 육체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혼이며, 혼을 주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육의 싸움을 일으키고, 다음에 혼의 싸움, 맨 나중에 영의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으려면 우리의 혼이 그 영을 기꺼이 맞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싶어 하여도 우리의 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 하나가 된 것을 ‘영혼’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100%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되며, 이런 사람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영혼 가운데 70%가 주님의 성령이고 30%가 인간의 혼이라면 이 나머지 30%는 아직도 인간의 혼으로 남아 있으므로 그의 행동의 30%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70%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예수를 믿노라고 열심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실은 육체와 혼만이 드나들 뿐, 주의 영과는 하등 관계가 없



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일수록 ‘구원은 내 것’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많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롬7:24)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바울의 몸에 침투하여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성령이 혼에 들어오니 육체가 제 마음대로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行人)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마땅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2:11)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영혼을 거스르는 것은 육체 속의 정욕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모든 죄는 이 정욕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흔히들 정욕이라면 성욕을 가리키는 줄 알지만, 사실은 보다 더 넓은 의미의 탐심을 의미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혼에 악령(惡靈)이 접하여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된 자의 경우인데, 이런 사람을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 술객(術客)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무당과 같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홀연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 영의 세계가 이루어지

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영의 전쟁, 곧 마지막 아  
마겟돈 전쟁으로, 선과 악이 정면으로 대결하게 됩니다. 이 선과  
악의 대결이란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 측과 사망을 주관하는 마  
귀 측이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  
이니라.”(고전15:26)라고 한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천년세계를 거친 후에 일어나게 되므로, 먼 후일의 일입니  
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면한 중요한 과제는 이 천 년 세계가 어떻  
게 해서 이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의 마  
지막 종이 짙어진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족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악령이 소탕되는 것  
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눈에 손끝이 약간 닿기만 해도 탄 신  
을 받은 사람은 까무러치게 됩니다. 부딪치는 세력이 크기 때문입  
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여러분이 무슨 역사인지 모르겠다면 나  
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되도록 죄를 피하는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또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와 대결해 싸우라고 당  
부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밤낮 죄를 피해 도망만 치다가  
는 결국 패배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  
러분은 죄를 두려워 말고 싸워 이기십시오. 오늘의 이 은혜는 여  
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줍니다. 이 손길을 통하여 나  
가는 권능이 과거 하나님의 종보다 10배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러니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십시오.

항상 죄를 피하여 도망 다니는 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에도,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약4:7)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며, 또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은혜입니다.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와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하늘의 권세가 커지는 것입니다.

## Chapter 14.

# 영광에의 길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陳設餅)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12:1-8)

주께서는 3년이라는 짧은 시일에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 늘 동분서주(東奔西走)하는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는데, 동행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름길을 택하여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도를 전한 답시고 돌아다니면서 밀 이삭까지 잘라 먹는다는 것은 한 주일에 6일은 일하고, 7일째 쉬라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있었는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그렇게 멋대로 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다윗이 시장할 때 자기와 동행하던 자들과 함께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고 성경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그냥 말하면 예수가 머릿속에서 생각하여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까 봐 다윗의 고사(古事)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고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 사울 왕의 뒤를 잇게 되어 있었으나,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사울이 죽이고자 하니 다윗이 측근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농이라는 곳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간청하자, 그때 아히멜렉에게는 거룩한 날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떡밖에는 없었으나, 다윗과 그 일행이 다 정결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거룩한 떡을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 일행이 정결한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일손을 멈추게 되어 있는 안식일에도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 올려 지적하였습니다.(마12:5) 즉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제사장의 일인데, 그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제사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나도 7일째 되는 날에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하고 명령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 날 아침저녁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직분인 제사장이 설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율법의 원리에 대하여 타이른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를 모르면 무엇이 어찌하여 죄가 되고 안 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율법일진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안식일에 하더라도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벗어날 수 있어야 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지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마5:17)고 하였습니다. 즉 주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온전한 ‘자유의 율법’을 세운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사장이나 다윗보다도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윗이나 제사장이 율법을 범하여도 죄가 안 되는데, 이들보다 더 큰 내가 율법을

범했다고 죄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연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2:8)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님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주님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가리켜 마귀의 왕초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하는 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귀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느냐?”(막3:23)고 반박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영수의 손길을 통하여 악령이 소탕되어 가는 모습을 여러분은 눈으로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도깨비라는 욕을 먹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마12:31-32)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통념(通念)과는 달리, 주님 당시에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관념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셨으므로 그렇게 아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는 실은 탄생부터가 위에서 말한 이중성(二重性)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0년의 사생활을 마치고 성령을 받아 여호와의 도를 전하는 공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그를 가리켜 어떤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

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여 두 파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육적인 호칭이요,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영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육에 속하게 되고, 후자는 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입에서 오묘한 말씀이 터져 나오고, 병어리가 말하며,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등 희한한 권능을 행사하게 되자 어리둥절한 사람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가 아니냐. 어제까지 목수 노릇하던 사람이 병을 고치다니, 저 사람 언제 이런 재주를 다 배웠어. 혹시 요술이라도 부리는 거 아닌가?” 이것은 분명히 이들의 불찰입니다. 설사 어제까지는 대패질과 못질에 골몰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그 입과 그 손에서 큰 권능이 나타나면 그를 달리 보고, 적어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을 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 예수를 비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곧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를 거역하는’ 것입니다.(마12:32)

그런데 이와는 달리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아무래도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예수는 아니더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큰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겠나.” —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 사귀가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런 이적을 행한다.”(마 12:24)고 비방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곧 성령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사귀의 장난이다.”하고 주님을 비방한 것은 바리새교인 중에서도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영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는 송두리째 악령의 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안찰을 해 보면, 당사자는 별로 나쁜 짓을 한 기억이 없는데, 까무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마귀에게 단단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본인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일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내 손이 닿기가 무섭게 그 악령에게 여호와의 영, 즉 큰 적대 세력에 부딪혀 놈이 박살을 당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육체에 미쳐 까무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예배를 볼 적에 성령을 훼방합니다. 그런 사람이 함께 앉아 예배를 볼 때에는 그 대항하는 세력이 예배 인도자에게 미쳐 감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 악령의 갈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겨도 가는 길은 뻔합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그 악령의 조종을 받다가 끝내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악령에 씌운 사람이 놈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를 천만 번 불러도, 철야 기도를 몇십 년 하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놈의 힘이 그의 믿음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놈을 내쫓을 수 있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벧전5:8) 오늘날, 신령한 목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덮어놓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갈 줄 알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악령의 세력은 몇 년 전보다도 열 배나 강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 악의 세력을 소탕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계교는 제갈량이 만 명 있어도 못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한심스러운 것은 은혜가 충만하던 곳에 찬바람이 일면서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야 하고, 또 손을 쓰시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수가 오늘날 단상을 통하여 죄를 씻어 주고 악령을 내쫓는 고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진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도 없거니와,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큰 범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보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므

로 이것이 무슨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긴가민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고도 남을 만큼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영수를 통하여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내리던 것과는 강도(強度)가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나오기 시작한 두 달 전의 여러분의 심정과 오늘의 심령을 비교해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즉 두 달 전에 비해 여러분이 주님에게 얼마나 더 가까이 갔느냐, 요컨대 이것이 척도가 됩니다. 남이야 뭐라 하건, 나와 주님의 거리가 한결 좁혀진 것을 뚜렷이 느끼면 그것으로 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영수는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방금 이 보잘것없는 이영수를 통하여 과거의 어느 주의 종들보다도 강한 은혜가 내린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저마다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늘의 은사가 달라지면 이에 따르는 법도, 다시 말해서 마귀와 싸우는 방도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죄가 두려워 도망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도망치면 어디로 갈 겁니까? 땅 속에 들어갈 겁니까, 하늘로 날아오를 겁니까? 땅 속에도, 하늘 공중에

도, 마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정도의 은사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무서워 도망칠 것이 아니라, 죄가 여러분이 무서워 도망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여러분에게 같이하시는 성령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험악한 세상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역사가 바야흐로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보고 도망칠 때 우리는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약4:7) 이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방법과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디 가든지 마귀에게 침범당하지 않을 만큼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정도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면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마지막 영의 싸움에 의(義)의 군병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이야기가 귀에 거슬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루 속히 ‘듣는 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합니다.

## Chapter 15.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일찍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도를 전할 때의 애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신령한 말씀을 하여도 좃는 무리들이 육적(肉的)으로만 해석하여 피차에 핏트가 어긋나므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가 되는 등,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요6:53)고 말씀하였을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다시 어리둥절하여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끝내는 주님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2천 년이 지난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또 그렇

계들 가르치는 가운데, 이긴자가 나타나 피의 원리를 논하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실제로 먹고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잘것없는 이 사람의 입과 손길을 통하여 성경에 밝히 기록된 그대로 새로운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주님의 피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의 환경과 조건 및 주님의 심정을 잠깐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길 예비자로 온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은바 임무를 수행하였고, 주님은 주로 산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30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신 일도 산에서 자란 나무를 베어다가 깎고 다듬는 목수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당신이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하고,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훤히 내다보시고, 죽음을 하루 앞두고 겿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주께서는 당신의 사명이 무엇이며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막상 그 쓰라린 십자가를 지고 그 아픔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가 눈앞에 다가오자 새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더라도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주님의 심경을 ‘고민하고 슬

피하사'(마22:45)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당신의 고귀한 사명과 육의 고통 사이에서 영, 육의 치열한 싸움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마귀들이 총공세를 펴는 가운데 주님은 바윗돌을 부둥켜안고 여호와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마26:39)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죽음과 대결하는 주님의 몸부림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올리고 좀 떨어진 제자들에게 와 보니,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미 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바윗돌을 움켜 안고 하나님에게 같은 호소를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간청을 드렸습니다. 피가 온통 다 머리에 몰려 소위 고혈압 증세를 일으킨 가운데 전신에서 진땀이 핏방울 흐르듯 떨어지게 되자 여호와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힘을 주시매, 그제야 주님은 평온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스테반이 죽음의 공포를 이긴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힘을 주실 때 비로소 자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목숨을 내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신 주님도 죽음의 공포를 느꼈거늘, 다른 사람은 불문가지(不問可知)라 하겠습니까.

당시에 로마에서 이방인을 사형시킬 때 십자가에 사흘, 혹은 닷새씩 매달아 놓고 말라 죽게 하였는데, 손과 발에 쇠못만 박으면 온몸이 축 늘어지므로 미리 쇠고랑으로 손발을 고정시켜 놓고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은 되도록 십자가 나무 형틀에서 당하는 고통을 줄이고 빨리 운명하시기 위해 미리 식음을 폐한데다가, 끝에 쇠갈고리가 달린 로마 병정들의 가죽 채찍에 맞아 살이 문드러지고 찢어져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몸이 극도로 쇠약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는 순간 부지중에 커다란 신음 소리를 내어,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마리아와 제자들은 너무나 애처로워 귀를 막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짐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친히 보여 주신 하나의 처참한 광경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주께서는 당신을 죽이는 무리들을 위해 “저들을 용서하소서!”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하고 기도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이미 죽음을 이길 힘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양쪽 강도들과는 달리,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여섯 시간 매달려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찢어 등 뒤로 창이 빠져어나오기까지 하였으며, 전신의 피를 모조리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지금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그 피를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피는 오늘날 영의 양식으로 화하여, 이 손길을 통해 여러분의 몸에 스며들어 죄를 씻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눅13:1, 계21:6-7) 구약시대에 죄를 짓고 양이나 비둘기의 피로 여호와에게 제사 드리면 그 피만큼 자범죄(自犯罪)가 깨끗해졌으나, 오늘날에는 다른 보혜사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슬과 불과 향취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선 역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주님의 피가 헛되이 짓밟히게 되자 주께서 크게 노하시고, 얼마 전부터 친히 나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다시 씻어 세우라고 명하셨기에, 오늘날 내가 갖은 핍박과 중상을 무릅쓰고 주님의 시키심에 힘을 얻어 순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영을 가려 다듬고 씻는 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전에 은혜를 받은 분들은 이 손길이 눈에 닿아도 별로 큰 고통이 없지만, 다른 데서 오신 분은 고통이 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이긴자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고, 소중히 간직하여 어디 가나 주님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다방에서나 부어 주는 주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말고, 은혜를 감사하며 싸워 이겨 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부어 주는 은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같은 구절도 풀이하기에 따라 보다 깊은 영적인 뜻을 지니게 되며, 이것을 잘 해독하여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에 신앙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말씀으로 다듬어 세우고 은혜로 씻어 주는 마지막 주님의 성업(聖業)이라는 것을, 산 체험을 통하여 아실 줄 믿습니다.

## Chapter 16.

# 할례(割禮)에 대하여(1)



### 1) 첫째 언약

오늘은 할례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밝히 드러내지 못하여,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무엇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명령했으며, 그것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숨은 여호와의 뜻과 영적인 기능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모세의 10계명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피로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최초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나 에녹과 같은 당신의

사람에 대하여도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할례 받기 전의 인류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살던 에덴동산은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낙원이었습니다. 이들이 죄를 지어 쫓겨난 후에 살게 된 인간의 세계가 바로 이 땅덩어리입니다. 이들이 쫓겨나던 당시의 환경은 우리와 다릅니다. 또 이들의 육신은 물론 모든 사고방식(思考方式)이나 생활양식도 오늘의 우리와는 판이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이나 500년 전 혹은 1,000년 전 조상들의 생활 풍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10년 전만 해도 가령 여자들은 맘보바지가 유행되었지만 지금은 나팔바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이순신 장군이나 다른 장수들이 쓰던 검은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 오늘의 국군 장성들에게 갖다 주면 잘 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의 장수들은 일반적으로 그만큼 우리보다 육신이 건장했습니다. 대체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육신이 더 건장한 대신 두뇌는 발달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만큼 문명이 뒤떨어져 사람들은 대체로 먹고 자는 것이 일어었으며, 이들 장수도 자연히 환경의 지배를 받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그들의 언동을 단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엔 지하철 공사가 한창입니다. 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노동력을 동원하여 이토록 번거롭게 두더지처럼

땅을 파서 굳이 철로를 놓아야 합니까? 만일 서울 바닥에 여기저기 드문드문 사람들이 산다면 굳이 이런 번잡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은 오늘의 우리 사회와는 모든 생활 여건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자 먼저 대적해 온 것은 짐승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짐승들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덩치가 한결 크고 성미도 더 사나웠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는 아득한 옛날 일을 기록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먼 장래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옛날 일을 대충 보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잡다단한 과거의 일을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광경은 아무리 선명히 보여 주고 가르쳐 주어도 모세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성질의 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그만큼 뒤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만 기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록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대(年代)만 하더라도 1년이 열두 달, 365일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던 태고의 일들은 추측에 의해 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자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창4:10)고 말씀하시고,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일렀을 때, 가인은 여호와에게 “주께서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니 내가 유

리하는 자가 되겠으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창 4:14)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 이외에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이런 가외 인간들에 대하여 언급을 피했을 뿐입니다.

실로 인류의 기원은 수만 년에 이르고 있으며, 다만 여호와께서 인간을 통하여 마귀와 싸운 역사가 6천 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규모를 갖추어 마귀와 싸우기 시작한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 먼 우리 조상들은 한동안 미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보호하여 오랜 장수를 누리게 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았습니다.(창6:2-3) 이들이 지나치게 육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뉘우칠 줄 모르고 죄악의 도가니에 빠져 들어가므로, 할 수 없이 홍수로 쓸어버리고, 의인 노아의 자손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의롭게 살게 하여 영광을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또다시 죄악에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세워 피의 언약을 하신 것이 곧 할례

입니다.

할례란 현대 의학의 용어를 빌어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즉 남자의 중요한 기관(器官)의 일부를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육신에 칼을 대므로 자연히 핏방울이 툭툭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피의 언약’이란 말은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여자와 무관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여자는 남자를 섬기게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남녀평등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격(人格)상의 평등이지, 기능(機能)상의 그것은 아닙니다. 저간의 소식을 성경은,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떼어 내어 여자를 지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는 그 기능 면에서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아 남자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 여호와와의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피의 언약, 즉 할례를 남자들에게만 국한시킨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주님 당시만 해도 약이라야 몰약을 비롯한 몇 가지 민간약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의술이 전혀 발달되지 못하여 맹장에 걸려도 꿈쩍 못하고 죽어 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절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위험천만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부싯돌로 된 칼을 댄 자리가 뒷나기라도 하면 굶고, 굶으면 매우 처치곤란이었던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렸을까요? 이것

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내세워 깨끗한 혈통을 유지하도록 하여 후대에 당신의 독생자가 태어나게 하려고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일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언자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할 것을 지시한 것은 그가 아흔 아홉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즉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들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창17:8)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 너희 중에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 이것이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陽皮)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창17:9-11)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실로 여호와와 인간 사이에 공식적으로 맺어진 피의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머슴까지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시를 받고 몸소 자기 양피를 베어 냈으며, 다음에는 그와 여종 사이에 태어난, 열세 살 된 이스마엘의 양피를 베고, 이어서 가족들, 심지어 머슴들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석유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아랍 국민의 조상입니다.

이때는 처음으로 할례를 시작하게 되어 부득이 성인이 되어 할례를 받느라고 상당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



호와께서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는 양피도 연하여 고통이 가장 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8일은 동물을 여호와에게 제물로 드리기에 제일 적합한 날이기도 합니다.(출22:30) 이와 같은 하늘의 법도에 따라 예수께서도 탄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눅2:21)

## 2) 피의 언약

성경에는 할례에 대하여 기록한 대목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과 교류하는 언약 중의 언약이 곧 할례라는 말씀은 앞에서 보았지만, 그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런 언약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왜 이토록 인간에게 관심을 두실까요? 그 이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사43:7) 그런데 그 인간이 죄에 떨어져 마귀의 소유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다시 건져 내기 위해 여러 모로 손을 썼던 것입니다. 즉 천사를 시켜 아직 미개한 그들을 슬기롭게 인도하게 하고, 또는 이상(異象)을 보여 주는 가운데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그 여호와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오랜 수명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인구가 많이 번식하면서 지각이 발달하게 되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언약하였는데, 그 육적인 인(印)침이 곧 할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아무에게나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할례를 받은 민족에게 성신이 역사하여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란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 테니,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일부를 베어 나에게 바치고, 피로써 나와 언약을 맺자.”는 여호와의 요구였습니다. 마음과 뱃속 까지도 살피시는 여호와지만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육적으로 역사하였으며, 이들 역시 육적으로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앙도 신앙이지만 육적으로 건강하고 정결하여 흠이 없기를 원하였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이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리려면 이 조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였으므로 마귀도 육적으로 침범하여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중요시한 이유도 이러한 사실에서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할례를 소홀히 하여 한 집안에 머슴 하나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 집안은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마련이었습니다.(창17:14)

그런데 모세 때에 와서 이 할례에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할 때에

그들의 호소를 여호와께서 듣고, 80세 된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구출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유랑민의 천막생활을 하면서 악전고투하던 시기는 의약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이므로 할례를 바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이면 할례로 인한 상처쯤은 한 주일이면 거뜬히 낫겠지만, 당시에는 덧나면 한두 달씩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기 위해 일을 시작한 무렵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저마다 할례를 이미 받았지만, 시일이 10년, 20년 지나감에 따라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의 여하를 막론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거느리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처럼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가 날로 늘어간 것은 모세의 불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죄과였던 것입니다.

할례는 여호와와 인간 사이의 언약의 표시로, 그것은 율법 이전의 것입니다. 즉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해 놓고 나서 그 백성들이 지킬 율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먼저 얻은 연후에 미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미국 법률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

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할례를 바쳐서 여호와와 백성을 만든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이들이 지킬 율법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할례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율법의 조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면서 할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할례 산에서 집단적으로 할례를 실시하였습니다. 4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싷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수5:2)고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 3) 복된 언약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간을 멸했다가는 다시 살리고, 다시 살려서는 언약을 맺고 법도를 주시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신학에서 소위 ‘예정론’에 대하여 논란이 많지만, 성경에 말하는 예정이란 여호와의 뜻을 미리 예정했다는 의미이지, 구체적인 개인, 그러니까 이 서방, 박 서방을 미리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칼뱅의 ‘절대예정설’ 같은 것도 그가 예정을 육적으로 해석한 데서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와 역사를 어디까지나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

니다. 즉 성령과 악령의 투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깊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고서는 말씀을 깊이 쫓갤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와는 태초에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똑같이 지었습니다. 즉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곧 부활하신 주님은 됴됨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닌 제3의 당신, 즉 분신(分身)들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사는 당신의 나라가 이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마귀가 그냥 두지 않고 자기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여호와의 경륜을 기록한 것이 곧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마귀라는 만만치 않은 강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계획, 다시 말해서 마귀와의 투쟁에서 전술이 바뀌기도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마련이지만, 그 과정에 진퇴와 기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신 인간을 마귀가 건드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善惡果)를 따 먹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만세 전에 정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에 여호와가 예정

한 세 단계가 있다는 말씀은 전에 전하였으므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이미 그 첫 단계인 구약시대를 지나, 여호와께서 인간의 혼을 두고 마귀와 싸우는 신약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면 인간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에게는 인간이 매우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사사건건 그토록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세상 싸움에서도 적의 정체를 알기 위해 간첩을 파견합니다. 싸움에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싸움에 있어서도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침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원통한 일이지만, 한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귀가 움직이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가 인간을 당신 형상대로 짓지 않았던들 마귀는 인간을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전술상 여호와에게 매우 불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악령의 세 번째 전쟁, 즉 영적 전쟁 때에 여호와께서 마귀를 무저갱 속에서 모두 밖으로 유도해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여호와와 마귀의 싸움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척후병(斥候兵)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없으면 여호와와는 이 싸움을 유리하게 치

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1차전에서 아브라함이 육적 싸움의 조상이 되고 모세가 그 율법(십계명)을 완성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과 마귀의 2차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간의 혼과 여호와의 성령이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영적 싸움의 조상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자가 모세와 같은 권능으로 그 율법(자유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옛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집에서는 할례를 위해 부싯돌로 만든 칼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감각이 아직 덜 발달된 무렵에 비교적 고통을 덜 느끼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날짜를 8일 만에 하라고 정한 것은 당시에 남자가 태어나면 7일 동안, 여자가 태어나면 15일 동안 여자가 월경이 있을 때처럼 부정하게 간주하여 하나님과 교류할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부정한 것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몸에 상처를 입었거나 송장 같은 것을 만졌을 경우에는 제사 드리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복을 받는 비결의 하나가 이 할례를 잘 지키는 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혼인도 할례 받은 자 이외에는 성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이방인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섞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여호와 의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이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혈통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국민성이나 풍습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컨대 농부가 소 두 마리를 동시에 부려 밭을 갈고, 타작마 당에서 도리깨질을 한다거나,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맷돌질을 하는 따위가 그렇고, 죽은 자에게 베풀어 입혀 장사지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나마 하나님 을 의지하는 신앙의 열도가 가장 높은 데가 우리 한국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동방의 땅 모퉁이 나라에 이긴자를 세우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 Chapter 17.

### 할례에 대하여(2)



#### 1) 할례와 율법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터뜨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또 그 성경적인 중요성도 이해하고 있지만, 할례에 대해서는 이름만 들었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할례는 모세의 율법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피의 언약을 표시하며, 할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로, 다른 이방인들은 이 법도를 지키건 말건 상관 없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이 곧 모세의 율법입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모세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만일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 호적을 둔 백성이 한국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을 면할 길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모세가 태어나기 약 700년 전부터 실시해 왔으므로 그동안 할례만으로 하나님의 백성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에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준 후로는 할례와 율법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했습니다. 조건이 그만큼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모세 때에는 어지간히 지각이 들어 10계명쯤 능히 지킬 수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심령들을 율법으로 다스릴 필요를 느끼신 것입니다.

그 후 주님 때에 와서 새 율법, 즉 자유의 율법을 주신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하여 보다 더 큰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로 자범죄밖에 사함을 받지 못하였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와 유전죄도 주의 피로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원죄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요, 유전죄란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들의 몸에 흐르는 피를 혼탁케 하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죄이며, 자범죄(自

犯罪)란 문자 그대로 자신들이 세상에 태어나 지은 모든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지켜 오던 이 할례를 바울이 폐지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당신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켜 온 할례를 바울을 통하여 폐지시켰을까요?

바울은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여호와와의 큰 종으로, 당시로 말하면 매우 어려운 사명을 무난히 완수하였습니다. 주께서 바울을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직접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쓰신 후로 하늘에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중대한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즉 일찍이 주께서 세상에서 3년 동안 전하신 말씀의 일부를 시정했던 것입니다. 할례와 모세 율법의 폐지가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상의 움직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륜 가운데는 예정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세 여하에 따라 변동이 따르며, 따라서 절대 예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원리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빚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할 때 언제나 마귀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마.”(마16:28)고 약속하시고,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된다.”(계1:7)고 하신 말씀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기된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주님의 계획은 베드로를 통하여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시부터 말세 운운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만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은 그에게 ‘천국열쇠를 맡긴’(마16:19)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큰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성신을 거스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석에서 쓰러지게 했으며,(행5:1-11) 말세를 증거하여(행2:14 이하) 하루에 3,000명을 주님에게로 이끄는 큰 성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받은 불의 성신이 베드로와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 증거의 성신이라 하더라도 당시에는 오늘의 세 증거의 성신 못지않은 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만 했으면 베드로가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빛의 세계를 맞이하는 계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불의 성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것은 별로 맥을 쓰지 못합니다. 근년에 우리나라에도 불의 성신을 받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었으나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긴자를 통하여 이루는 이곳에서 물과 불과 피의 세 증거의 성신을 주어서 역사하는 이유도 위에서 한 내 말에서 잘 이해가 갈 줄 압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입김과 손길에 일찍이 어떤 하나님의 종보다도 더 큰 권능이 임하게 된 것도 다 까닭

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방 전도를 위해서였습니다. 설사 바울이 주님과와는 원수가 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기는 했지만, 젊고 유식하고 패기 있는 그를 들어 쓰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주께서 직접 육성으로 “사울아!”하고 불러 당신의 사람을 만든 후에 이방 전도의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 베드로와 바울의 대립

그런데 막상 이방인에게 주의 도를 전하려고 하니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할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주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만 해도 난사 중의 난사인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양피 가죽을 베어 피를 내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를 폐지시킨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폐지시킨 것이라기보다 하늘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儀文)에 있지 않다.”(롬2:28-29)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즉 할례란 마음에 할 일이지, 형식적으로 양피만 베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몇 안 되고,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펄쩍 뛰면서 심지어 이단으로 몰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수천 년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유일한 증거요, 주님과 세례 요한도 받은 할례를 바울이 폐지하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에게 음으로 양으로 증상과 모략과 핍박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까지도 주를 믿는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날뛰던 자가 웬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상 할례란 육에 인치는 것으로, 마음에 인치는 성령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의 주장이 온전치 못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못 가서 고꾸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방 전도를 위한 사도 바울이 없었던들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할례를 폐지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폐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반드시 그에 대치될 새것이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이며, 성령은 할례가 육에 인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달라집니다. 즉 할례 받은 백성은 육의 율법인 10계명을 준수하지만, 성신을 받은 자는 영의 자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는 할례에 대하여 견해 차이와 갈등이 생겼을까요? 여호와께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준 성신은 같지만, 사명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베드로를 통하여 죄악 세상에 종지부를 찍는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들, 바울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 바울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늘에서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설사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새로운 지시는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시는 새로운 사명을 맡은 당사자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앞선 하나님의 종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앞선 하나님의 종은 나중 종이 어떤 사명을 맡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선 종의 사명을 다 알게 됩니다. 모르고서는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원칙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자기가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덤덤히 자기 일만 하고 상대방을 꼬집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왕창 벌이면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 3) 고전(苦戰)하는 바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으로 부름을 받은 후, 그때까지 주님의 원수가 되어 움직이던 그는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동시에, 지난날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퐁으로 여겨 내동댕이치고 새로운 믿음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할례를 폐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은 여러 낮과 밤을 두고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처한 여건이 너무나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는 어제까지만 하여도 주님을 믿는 자들을 모조리 올라미에 걸어 죽여 버리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자요, 이러한 자기가 갑자기 나타나 수천 년 이래로 대대손손 지켜 온 하나님의 법도를 폐지하는 사명을 맡았으니 말입니다. 설사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는 하지만, 이걸 누가 알아주며, 알아준다 하더라도 누가 인정해 줄 것인가, 또 이에 따르는 공격의 화살은 얼마나 날카로울 것인가, 등등의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아, 사명은 무겁고 일은 난감한 나머지 바울은 잠자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날을 새기가 일쑤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물론 특별한 여호와의 은사와 가호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이 사명을 실제로 이루려는 마당에서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늘에서도 이런 바울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과분한 사명을 맡긴 데는 그럴만한 이유



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뻐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자니 당시의 처지로는 그나마 바울을 택하는 것이 상책이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릇이 능히 그 사명을 완수할 만하였습니다. 바울은 일이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 다. 만일 이때 바울이 주님의 지시를,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러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도 그때는 부득이 판 방도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 라.”(행15:1-2) 여기 기록된 ‘어떤 사람들’이란,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을 증거하던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호한 표현을 한 것은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벌인 언쟁을 되도록 가볍게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여호와의 법도에 따라 할례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찌하여 유대로부터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으로 내려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판 교리를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휘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도들에게 이구동성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과 바울 및 바나바 사이에는 큰 변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신약시대는 형식적인

육의 할례로 인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지시하신 바라고 목이 아프도록 외쳤으나, 그들에게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안드레나 야고보 같은 주님의 제자의 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주님과 같은 원수가 되어 움직이던 자가 ‘주님의 지시’ 운운하고 똥판지같은 가르침을 퍼뜨리니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니 성령이 임했는데 그게 될 말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나올 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눈도 깜짝하지 않고 계속 참된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신도들 중에는 바울의 말을 시인하는 사람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양쪽 말을 들어 보니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어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다못해 바울을 비롯해, 마나바나 몇몇 바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 어느 쪽이 옳은지 판가름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 할례를 폐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역설하였고, 바리새인 중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행15:1-5)

#### 4) 주의 종이 가는 길

바울은 진퇴양난(進退兩難)이었습니다. 하늘의 지시를 따르자니 땅에서 가로막고, 땅의 일에 동조하면 하늘의 일이 틀어지는 판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그것으로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슬기롭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인 모친과 헬라인 부친 사이에 태어난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손수 그에게 할례를 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성도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해야겠다고, 할 수 없이 형식적이거나 할례를 바쳤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디모데를 아무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바울은 눈 딱 감고 방편상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마쳤던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마10:16)는 주님의 말씀은 이를 두고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만일 바울이 이것을 해낼 그릇이 못 된다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란기를 바로잡아 정돈시키려면 비범한 재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님은 이와 같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수시로 이상 중에 나타나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도 했습니다.(행16:14) 그리하여

바울은 한 사람, 두 사람, 야금야금 여호와의 새로운 법도를 증거하여 지지자를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을 비방하고 공박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가 믿음의 형제들의 추태를 되도록 드러내지 않기 위해 성경에는 소상히 기록하지 않았으나, 바울은 갖은 욕을 먹었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새로운 법도가 그 종의 입을 통하여 터져 나오면 으레 잠잠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바울에게 어떤 욕설을 퍼부었는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쯤 벌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강하게 역사하던 그들에게서 성령을 갑자기 거두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거둬 버리면, 그들을 따르던 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쪽은 차츰 약하게 역사하시고 한쪽은 날로 강하게 역사하면서 차츰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가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땅에서 역사하시는 원리이며, 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등에 업은 바울은 꾸준히 전도의 기반을 닦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상당한 지지 세력을 얻기까지는 십오륙 년이라는 꽤 긴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조금씩 드러내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등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반도 얻지 못하였는데 주님의 지시라고 해서 함부로 마구 터뜨리면 완전히 매장되어 다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해를 은인자중해 오다가 어느 정도 지지자를 확보한 연후에 감춰진 비밀을 백일하에 드러내면서 강력히 외쳤던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儀文)에 있지 않다.”(롬 2:29)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고전7:19) 등등의 외침이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천사도 자기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외치게 되었습니다.(갈1:8)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지시였기 때문입니다.(갈1:12) 여호와께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 “우선 큰 은혜를 받았다가 떨어뜨린 자부터 건지라.”는 지시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에워싸고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바울 및 그 추종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란과 소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혼란을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종 한 사람을 들어 쓰시며, 앞선 당신의 종이 뜻을 이루지 못하여 새로운 종을 세우면 그에게만 지시를 내리는 것이 하나의 행동 원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맡기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베드로는 하루에 무려 3,000명을 회개시켰으나 바울은 고

작해야 여남은 명 정도밖에 진리 가운데 이끌어 들이지 못했습니다. (행19:7) 바울이 할례를 폐지시키는 새로운 법도는 이토록 난항 (難航)을 거듭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내가 할례를 전했던들 왜 핍박을 받았겠는가?” (갈5:11)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폐지는 이방 전도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길이 막혀 있던 그들에게 할례의 고통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할례 폐지 과정은 유대교 출신자들의 방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결코 주님의 지시를 망각하고 쉬운 길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이 가는 길입니다. 그는 첫째 하나님을 위하고 다음에는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 어떠한 괴로움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5)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다

하루는 베드로가 식사를 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더니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큰 보자기 같았는데, 네 귀를 떼어 땅에 드리웠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행10:12-13)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끗하지 않고 속된 것이라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다

시 “깨끗하게 한 것이니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타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꺼림칙하여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겠노라고 우겼더니, 또 하늘에서 그런 짐승들이 담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여호와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기를 세 번, 그때서야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이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아들이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으므로, **(행10:19-20)** 이들 이방인을 따라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서슴지 않고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로서는 획기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가리키며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물건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할례의 법도와 모세 율법 아래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금계(禁戒)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방인도 깨끗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행10:28-29)** 이후로 베드로는 이방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훗날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율법주의자들 사이의 논란이 있은 후 비로소 사도들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 것을 결의하였습니다.(행15장 참조) 그리고 이때를 전후하여 이미 바울의 주장이 어지간히 받아들여져 말발이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이르기에는 실로 10여 년의 긴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칭호로 깎듯이 존대해 온 과거와는 달리, 베드로의 소행이 바울의 눈에 거슬리면 책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베드로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등 뒤에는 언제나 주께서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이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충실한 야고보의 추종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를 같이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바나바도 끼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실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함께 회식하여도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즉 바울의 주장에 동조하여 이방인과 어울렸으면 야고보의 추종자들에게도 떳떳이 자기 소신을 밝힐 일이지, 자리를 같이한 자들과 함께 율법주의자들 보기가 면구스러워 도망을 친다는 것은 대 사도인 베드로의 취할 바 태도가 아니며, 그가 얼마나 줯대 없는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



장본인의 입장으로는 자기 위신을 먼저 생각한 처사였겠지만, 요컨대 그는 이 정도로 믿음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바울을 따르던 바나바까지도 덩달아 베드로의 뒤를 따르는 것을 보고 바울은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우고 책망하였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할 수 있겠소!”(갈2:14) 즉 당신의 행실이 그렇게 표리부동해 가지고 어떻게 이방인을 믿음 가운데 이끌어 들일 수 있겠소 –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사도라는 칭호도 얻지 못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12사도보다도 더 크다.”(고후12:11)고 한 말이 어떤 동기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하늘의 법도를 주신 후로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에게 달리 지시를 주지 않고 은혜를 서서히 거두어들였던 것입니다.

## 6) 율법과 은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蒙學先生)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갈3:23-25)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사도 바

울의 해명입니다.

할례와 동시에 모세의 율법도 정식으로 폐지시킨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일단 폐지시키면 자연히 뒤따라야 할 일이었지만, 막상 수천 년 동안이나 지켜 오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하루에 뒤엎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이 막중한 사명을 마칠 수 있는 그릇을 12사도들 중에서 물색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120문도들 가운데서 찾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 준 이들 중에서 택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처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심하게 찾아보아도 바울만 한 그릇이 없는 고로 할 수 없이 바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애로는 물론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번거로움이란 주님의 성령으로 바울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바울과 접촉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주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육성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로란, 바울이 당시에 주님을 대적하여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므로 그의 말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좀처럼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마자 부딪치는 장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과 애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바울을 택한

것은 결코 바울이 예뻐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은 너무나 벽차 압전히만 자란 성도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모세)이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갈3:24)이라고 하였습니다. 몽학선생이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A라는 고명한 박사를 만나야 할 일이 있는데, 직접 안면이 없으므로 A박사를 잘 아는 B선생을 중간에 넣어서 선이 닿게 했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 B선생이 애꾸눈이건 절름발이건 관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이 B선생을 길잡이로 해서 그의 뒤를 따라가 A박사와 접선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일단 A박사와 나 사이에 초대면 인사를 나누고 나면 나에게 B선생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모세 율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A박사라면 율법은 B선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 주님과 영적인 교류를 시작하면 모세의 율법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아주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온전한 ‘자유의 율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성도를 죽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폐단은 이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물론 이방

인으로 무할례자이지만 그녀는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성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교회에서 설교했다면 그녀는 실망하여 곧 은혜를 등지고 말 것입니다. 즉 은혜는 살리려고 하는데 율법이 목을 비튼 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단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존속되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율법과 강령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11:13) 주님이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이를 입증해 보여 준 것이었습니다.(마27:51)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들과 120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서도 오랫동안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만일 이 율레나 법도를 어기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경우 성령을 받으면 옛 율법은 필요 없고 새 자유의 율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여전히 불필요한 옛것을 숭상하다가 결국은 은혜마저 쏟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어느 다락방에서 30명쯤 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심부름을 나갔다가 로마 병정에게 잡혔다고 합

시다. 로마 병정은 그에게 예수쟁이들이 숨어 있는 곳을 대라고 으르르딱딱거립니다. 이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율법에 충실히 살기 위해 어디에 숨어 있다고 끝이곧대로 대어 성도들이 몽땅 잡혀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믿음에 이르는 길잡이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란 주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율법주의의 횡포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누가 성령을 받고 본의 아닌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크게 회개하고 끊긴 은혜의 연결을 받았는데, 교회에 나갔더니 단상에서 그의 죄상을 들어가면서 지옥을 면치 못할 마귀새끼라고 때렸다면 그는 실망한 나머지 타락해 버리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성경 66권을 통틀어 ‘천당행’과 ‘지옥행’을 구분 짓는 율법으로 간주하고, 이 길을 가면 천당이다, 저 길을 가면 지옥이다, 이걸 지키면 구원이다, 못 지키면 개죽음이다, 하는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것을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으며, 따라서 기독교는 간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앞에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모세의 율법 대신 자유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과 자유의 율법은 어떻

게 다른가? 그 차이점에 대하여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통장에 100만 원의 예금을 한 사람이 어떤 상점에 갔다가 100원 한 장을 살짝 훔쳤을 경우와, 세 끼를 자식들과 내리 굶다가 기진한 나머지 국수라도 사려고 가려고 어느 집에서 100원 한 장을 훔쳤을 경우에 모세의 율법은 무조건 두 사람을 똑같이 범죄자로 취급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자유의 율법은 각각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100원을 훔쳐도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다스리게 됩니다.

사실 율법으로 죄를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상이 천태만상(千態萬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각자의 사정과 처지를 두루 통찰(通察)하여 그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자유율법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명시된 일정한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이, 스스로 헤아려 일을 처리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율법은 10계명이 아닌 10억 계명도 더 되는 무수한 것이며, 차라리 ‘무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의 율법이 필요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10계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은혜가 율법에 의해 매장된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그치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Chapter 18.

# 성령과 물과 피



이 세상은 빛과 어둠, 의(義)와 불의, 소망과 절망, 사랑과 미움의 싸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을 가운데 놓고 대적해 온 지 6,000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육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인간과 함께 계시지 못하고 떠나신 다음, 인간을 사이에 두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인류의 역사(歷史)인 것입니다.

성경은 약 6,000년 전의 일부터 기록된 말씀으로, 6,000년 가운데 세례 요한 때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즉 선지자나 사사들을 통하여 역사해 왔으며, 모세의 율법도 여기에 큰 구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속하여 여호와와의 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비롯하여 그 밖의 모든 규례는 세례 요한 때까지이며, 주님이 오

시기 전에 요한이 베푼 것이 물세례이고 그 후로는 법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다른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게 되어 있으며 또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물의 세례와 피의 세례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마3:11)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고,(눅1:15)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말4:5)고 예언한 그 장본인이며, 하늘의 은사가 그를 통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제사가 세례 요한 때에 와서 물세례로 바뀐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으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여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에서 과도기적(過渡期的)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여기 적응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연



단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집안에서 곱게 자랐다면 어려운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런 옷은 집안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은 날이나 추운 날이 많을 터이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으로는 당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쫓겨 살면서 광야에서 자고 먹으며 빈궁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광야 생활을 한 것이 공통됩니다. 요한이 엘리야의 분신이므로 두 사람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물세례를 준 것도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요1:33) 세례 요한은 물론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이 어디 있는 누구라는 구체적인 내용만은 몰랐습니다. 만일 메시아가 나사렛 동네의 자기 친척 되는 예수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들 자주 찾아가 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께서 비밀에 부쳤습니다. 혹시 사전에 요한이 입을 선불리 놀려 마귀에게 알려지면 낭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

도 메시아가 실제로 누구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증거할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하고 알아차렸던 것입니다.(요1:33)

세례 요한은 교권을 잡은 제사장의 아들이요, 집안 살림도 넉넉하여, 이를테면 상류 계급의 명사로 꼽힐 만한 존재이므로 그가 물세례를 줄 때 그의 주위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도 당시에 상류층에 속하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조용히 권면하기는커녕 오히려 처음부터 “독사의 무리들아, 회개하라!”(마3:7)고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아무도 킁소리 한 번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한의 위세에 놀려, “당신이 오리라 한 메시아십니까?”(요1:19-20) 하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요한에게 준 것은 어떤 율레나 법도가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는 은사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한이 세례 주는 그 물을 성스러운 물로 변화시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하고 물어 왔을 때, 여호와의 큰 종이다 하고 뽐내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는 나중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요, 그분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훌륭한 집안에 태어나고 성령도 충만하여 얼마든지 뽐낼 수도 있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연단을 하는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싹 빼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6

개월 동안 쓰이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미리 준비 하였으나, 그래도 요한은 온전치 못하여 주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마11:3)**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종의 직분입니다.

요한의 세대에는 여호와께서 물로 은총을 내렸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어 종전의 율법을 그만큼 변혁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들고 가서 여호와에게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심지어 제사장 자신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시대에 선지자나 사사들이 받고 움직이던 성령이나, 요한이 받고 물세례를 베풀던 성령이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여 보내 주신 성령이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니, 셋이 합쳐서 하나” **(요5:8)**란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성령의 세례와 물의 세례와 피의 세례의 은혜가 각각 다르고 법도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법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사법이나 그 밖의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세례 요한의 경우가 그렇고,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러하였습니다.

## Chapter 19.

#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 1) 위대한 종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종으로, 세상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가까이하시면서 직접 일문일답(一問一答)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큰 종이므로, 성경에 나타난 그의 발자취를 두고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그를 어렸을 때부터 택하여 키워 오면서 연단을 쌓은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갓 난 모세로 하여금 상자에 담겨 나일 강가에 버려지게 하여 애굽 왕녀의 양자가 되게 하였고, 고등 교육을 받고 애굽의 고관으로 일하는 동안에 궁중의 모든 풍습과 예의범절 등이 몸에 배게 하였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인 이스라엘인이 애굽인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격동한 나머지

애굽인을 죽여 바로의 노여움을 사고 미디안으로 도망쳐,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역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빈틈없는 여호와와의 섭리가 모세에게 가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와의 지시대로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여 자기가 여호와와의 종임을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그는 모세를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출4:21, 7:13) 자기 나라 술객(術客)들도 이런 이적쯤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만일 이때 바로가 곧 모세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 주면, 금세 후회하고 취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모세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충분히 입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 왕실에서 쫓겨나게 하여 호화로운 궁중 생활과는 전혀 판판인 양치는 목자의 생활을 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쓸쓸한 허허벌판을 무대로, 양을 치는 원시적인 미개인 생활에서 비롯되는 갖은 고생을 달게 받으면서, 미리 단련을 쌓아 앞으로의 큰일에 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양치는 목자의 생활은 동족을 인도하는 내일의 영도자로서 안성맞춤인 수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모세는 40년 동안의 화려한 궁중 생활에서는 상상도 못할, 쓰라린 시련을 견디면서 인생의 안팎을 고루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80세가 되어 양을 몰고 호렘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떨기나무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영광 중에 여호와가 나타나신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불러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고 이르시고, “신을 벗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만 해도 60만을 헤아리는, 도합 300만 명가량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느리고 대이동을 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이라야 수레 정도요, 통신망도 하나 갖추지 못한 당시의 일이라, 앞장선 모세와 대열의 맨 끝까지는 시선이 닿지 않을 정도였으므로, 모세에게 어떤 긴급한 연락을 취하기 위해 말을 타고 달린다 해도 하루해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중들은 모세가 어디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기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일일이 신호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동쪽에 머물러 있으면 모세가 동녘에서 쉬고 있다는 여호와의 신호요, 서쪽으로 흘러가면 모세가 서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구름을 볼 수 없으므로 불기둥으로 일일이 이와 같은 신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로 건널 수 없었으므로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가르게 하여 무사히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마치 인천 앞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밀려갔다 밀려오는 것처럼, 모세가 한 번 지팡이를 들어 외치자 바다도 갈라져 길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모세의 지팡이는 그의 전 재산으로, 여호와의 큰 권능이 같이하였습니다. 모세가 남달리 잘나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민족이 가엾어서 모세를 들어 쓰자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이들에게 식량(食糧)이 떨어지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 배를 채우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사나운 바람에 메추라기 떼를 날려 땅바닥에 주둥아리를 박고 죽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먹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위대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권능이 그렇고, 그의 학식이 그렇고, 그의 심령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는 신학자로서 이른바 ‘모세5경’을 저술했으며, 자기 자신보다도 겨레를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출현을 예고하여 “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신 18:15)고 했는데, 이것은 첫째 율법(律法)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기와 새 율법의 주인공으로서의 주님을 비교하여 언급한 것으로, 주님도 당신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했다.”(요5:46)고 말씀하고, “너희 죄를 송사할 자는 모세”(요5:45)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눈을 뜬 소경에게, “넌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9:28)라고 빈정댈 정도로, 모세의

권위는 대단하였습니다.

## 2) 하나님의 종의 법도

그런데 그랬던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는 무엇 때문에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미리 당신의 큰 종으로 들어 쓰시려고 정해 놓으셨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 내는 직분을 80세 난 그에게 줄 때에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해 말을 못한다고 하자, 여호와께서 “네 손을 품 안에 넣어 보라.” 하기에 모세가 그대로 했다가 빼 보니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품 안에 넣으라 하기에 또 그대로 했다가 빼 보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하더라도 내가 있으니 네가 믿고 하라.”고 말씀했을 때,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믿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다면, 즉시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와 같이하여 모세에게 훌륭한 언변을 허락했을 터인데, 그가 자기 본위의 생각을 하고 판 사람을 애굽에 보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하시고 모세의 형을 그의 대변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출4:11-14)



여호와께서 사자를 시키지 않고 몸소 강림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모세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뒷모습을 바위틈에서 눈으로 목격할 만큼 여호와를 가까이 모셨던 인물입니다. 여호와와는 그런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되어도 너만은 안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웬일일까요? 흔히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에서 열까지, 열에서 백까지, 마음대로 되는 줄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된 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 나중에 깊은 영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도 여호와께서 쓰시기 위해 친히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이외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여호와의 깊은 사정은 미처 몰랐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 이것이 구약시대 율법의 기본 입장이며, 이와 같은 율법주의의 조상이 모세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죄인을 쳐 죽이는 직분을 맡은 모세보다는 죄인에게 성령을 부어 의(義)의 길로 인도하는 자의 직분이 더 크지 않느냐고 반문했던 것입니다.(고후3:7-8)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통해 잘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즉 선지자의 법도(法度)와 하나님의 백성, 곧 일반 신도의 그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에게 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

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되는 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비롯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여호와와 어떻게 교류하는가를 잘 알 수 있으며, 이것을 잘 알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말씀으로 여러분을 주와 가까이 연결시켜 주는, 이를테면 영적인 뚜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것은 여러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구원이란 누워서 떡 먹기와 같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덮어놓고 주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아, 바위야, 날 가려라.”(계 6:16)라고 겁에 질려 외치게 될 마지막 날의 환난을 빛의 아들들은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를 어떻게 씻고, 어떻게 의로워져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있으면 헛수고를 하기 일쑤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믿음의 세계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직접 대화를 나누시면서 들려준 것도 많지만, 이상 중에 보여 준 것은 더 많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아는 것보다, 주가 나를 알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주를 이렇게 열심히 섬

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냉랭하고 맨송맨송할까? 하고 자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딘가 잘못된 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것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모세는 제사 지내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소상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단은 어떤 나무로 어떻게 짓고, 예물은 어떤 것을 어떻게 드리고, 제물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것을 바치고, 장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베실은 청색, 자색, 홍색실로 어떻게 하고, 아무튼 그렇게 자상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처럼 자상히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교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영수가 여호와의 깊은 사정을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어떤 신학자도 지적해 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러내기 전까지는 비밀이지만, 일단 입 밖에 나오면 세상이 알게 되며,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신으로”(눅4:6)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요10:35)

나는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지켜야 할 법도와 일반 백성들의 법도가 다르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세상에 나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이 율법을 전하는 장본인 모세에게는 이 율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동생을 책망하였는데,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벌을 내렸던 것입니다.(민12:8-16) 당시에 아론이나 미리암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가장 측근자로서, 모세에게 좋다, 나쁘다 하고 직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따라서 당시에 그들은 상당한 비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론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 모세의 대변자로 내세운 사람으로, 광야에서 회중에게 하는 말은 일일이 아론의 입을 빌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 옆에서 “우리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내어 먹일 테다.”하고 말하면,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론이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이방 여인을 취한 아우를 책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벌을 내리고 모세의 비행을 눈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 3) 모세의 실수

그럼 무엇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방 여인을 취했을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40주야를 대화하는 동안에 회중들은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시내산은 높고 험한 산으로 등산 기술이 발달된 오늘날과는 달라서, 아무나 오를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고 이틀, 사흘, 열흘, 스무 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 이들은 기다리다가 지쳐 멧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가 어느 바위틈에서 잠을 자는지,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그들은 갖고 있던 금붙이를 녹여서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며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사이에 애굽에서 하던 법도와 범절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슴지 않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족속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고 가는 모세의 고충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생명책에서 숫제 자기 이름을 지워 달라고 여호와에게 간구할 정도였던 것입니다.(출32:32) 심지어 백성들로 인해 곤고함을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를 죽여 달라고 까지 하였습니다.(민11:15) 이런 모세였으므로 한 가닥 위안이나마 얻으려고 구스의 여인을 취했던 것입니다.(민12:1)

그는 40년 동안 무지몽매한 동족을 이끌고 광야를 헤매며 갖

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직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사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오랫동안 묵묵히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너무 늙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 나이에도 원기 왕성하고 정정했습니다. 그럼 눈이 어두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눈이 멀쩡했습니다. 그럼 권능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여전히 큰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구약시대를 통틀어 영의 세계에 제일 깊이 들어간 하나님의 종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비로소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던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의 세계에도 이처럼 밝았으며, 또 한편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독점하고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러한 그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일도 시작보다 끝을 잘 맺어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를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화려하여도 끝이 엉망이면 그는 결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시작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욕을 바가지로 뒤집어 써도 유종의 미를 거두면 위대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맡은바 하나님의 사업을 잘 완수한 분이 있는가 하면, 절반밖에 이루지

못한 분, 숫제 시작만 하고 만 분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느 날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민27:13) 모세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들여보내기 위해 자기를 민족의 영도자로 삼고, 언제나 격려해 주고 가르쳐 주시던 여호와께서 자기더러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다니, 이걸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눈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아찔하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땅바닥에 이마를 조아리고 여호와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불러 주시매 나섰고, 가르쳐 주시매 알았고, 이끌어 주시매 이날까지 이 백성을 끌고 온 제가 아니오리까. 그러하온데 이제 와서 제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니 어찌된 일이옵니까? 여호와여, 저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의 유일무이한 소망이었나이다.”(신3:25)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슴을 치면서 세 번 여호와께 똑같은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에게 더 간구하지 말라.”(신3:26) 이때의 모세의 비통한 심정은 모세밖에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역시 위대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기도의 제목을 달리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그럼 저는 못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광야에서 저를 따르던 이 동포들은 어찌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쓰러져도 좋으나, 이 당신의 백성들은 건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민27:16-17) 이번에는 곧 여호와

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예비한 여호수아가 있으니, 네 소임을 그에게 인계하여라.”(민27:18-20)

이리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에 세대교체가 단행되었습니다. 만일 이때 모세가 여호와와의 말씀에 불응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뜸 쓸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내세워 특별히 가까이한 당신의 종을 마구 쓸어버리면 당신의 영광이 그만큼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보다 회중을 염려하여 여호와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일면을 사울 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대상21:1 참조) 모세는 순순히 자기의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와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민27:14) 모세가 광야에서 동족을 이끌어올 때 물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자 회중들은 목이 말라 아우성을 치다가 모세를 크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가 이 광경을 보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일렀습니다.(민20:8)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회중을 모아 놓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민20:10) 하고 손을 들어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어 회중을 먹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모세가 여호와에게 별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 않지만, 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두 번 ‘때려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와 능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우리가 물을 내마.”하고, 지팡이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와 종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종이 할 일의 전부인데,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하고 여호와와 것으로 자기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한 것을 묵인한 여호와께서 이런 모세의 소행을 크게 책잡은 것은 이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람과 여느 사람의 법도가 다르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깊은 내막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앞서서 움직였던 하나님의 종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와 사명을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을 여호와는 제일 싫어합니다.

나는 앞에서 다윗과 모세 사이에는 대조적인 일면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여호와와 깊은 사정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처첩(妻妾)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문득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그녀를 궁중에 데려오게 하고 그녀의 남편은 싸움터에 나가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고는 그녀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삼하11:2) 그러

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소행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므로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당신의 영광을 가로막았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처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저간의 경위는 사무엘하 24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여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한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인 요압은 왕에게 진언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진정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할진대 능히 못한 일이 없을 텐데, 무엇이 답답하여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여 주실 테니 그 뜻을 거두소서.”(삼하24:3)

그러나 다윗은 신하의 이 충언을 물리치고, 자기 뜻대로 인구조사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즉 여호와는 다윗에게 세 가지 형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왕의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윗 자신이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 다니는 것이며, 또 하나는 왕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심한 염병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 세 가지 형벌 중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그 벌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여 3일 동안의 염병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병으로 7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삼하24:12-15)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법도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

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매우 무자비한 것 같지만, 이것은 당신이 공의로 세상을 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호와와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는 대야도 만들고 요강도 만듭니다. 이때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나는 대야로 만들지 않고 요강으로 만들었느냐고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요강을 만든 것이 토기장의 뜻인 것처럼, 이런 법도를 정한 것이 여호와와 뜻이며, 또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과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달리하지 않으면 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여느 백성들과는 법도가 다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여호와와의 징계를 거부하면 그 화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깊은 사정을 모르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의 장단점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쪼개어 여호와와의 깊은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 줌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그 심령을 다듬어 여호와 앞에 세우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나는 이슬 같은 은혜로 여러분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혀를 망령되이 놀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만 여호와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연결시켜 영광을 여호와에게 돌리려는 것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어 줘라. 저렇게 씻어 줘

라.”하고 지시한 것이 따로 있지만 아직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종의 것을 그대로 흉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마귀의 웃음거리가 된 권능은 여호와께서 거두시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같되, 그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 Chapter 20.

# 물세레와 불세레



### 1) 세레 요한

성경에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90세 된 사라로 하여금 다시 경도가 있게 하여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한 일도 그 한 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사자가 와서 당신의 아내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그 생식을 도왔던 것입니다.

세레 요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요한의 부친인 제사장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미 늙었으나 여호와와 은총으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요한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

나 그의 성품은 사가랴나 엘리사벳 어느 쪽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미리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못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길 예비자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 예비자가 설마 자기 아들로 태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이 주 앞에 큰 이가 되며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보다 앞서 가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을 말했을 때, 사가랴는 자기 내외가 이미 늙은 사람인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때가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질 터이니 그런 줄 알고 입을 봉하고 있으라.”고 이른 다음, 그를 순제 당분간 병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눅1:20)** 만일 그가 사람들에게 선불리 나팔을 불면 마귀가 가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곧 늙은 엘리사벳은 수태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녀가 아닌 엘리사벳이라는 유부녀의 배를 빌려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의 사람 엘리야가 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럼 왜 주의 길 예비자를 사가라의 자식으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사가라가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을 그 수하에 거느리고 있으며, 엘리야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지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미 사가라 내외를 점찍어 놓고, 그들 사이에 자식을 못 낳게 하여 기도하는 중에 그 간구를 들어 아기를 낳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은 아버지가 사가라이므로, 사가라 2세로 이름을 지을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왕가왈부하던 끝에, 병어리가 된 사가라가 서판(書板)에 ‘요한’이라고 써서 이름 문제가 일단락되자, 그의 입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깊은 영적인 문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하늘의 존재로 불수레를 타고 승천할 때에 다 큰 체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어린애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오늘날 과학자는 물론, 적어도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긴 영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理性)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투성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만으로 영의 세계를 헤아리려고 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지성에 여호와와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일은커녕 성경 한마디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 이 말씀이 누구라는 것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으니, 그가 곧 빛이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빛’에 대해 증거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 2) 성령의 효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의 한 성례로서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으며,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것이 그것이며, 베드로와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을 부어 준 것이 그것입니다. 물세례보다 성령의 세례가 더 온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순절에 성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물세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2,000년이 가깝도록,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신부



가 ‘고해 성사’라는 것을 하여 죄를 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로 지켜 온 모든 율례가 세례 요한 때까지요, **(눅16:16)** 그 이후에는 성령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는데도 구태의연하게 옛것을 숭상한다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주께서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연후에, 일찍이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내린 성령을 받아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큰 역사를 하였고,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구태여 물세례는 받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긴 하나님께서는 물세례를 주는 것을 묵인하고, 거두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받은 성령을 당사자의 불찰로 놓쳐 버리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떠나면, 그 대신 7배나 강한 마귀가 그를 점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5:14)** 차라리 불신자에게는 이런 폐단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 잘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해서 무작정 받기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며, 물세례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물

세례로 축복을 받아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따르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라는 말도 듣지 못하였으나 바울이 안수하니 곧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행19:6) 이것은 바울이 물세례를 폐지시킨 것을 의미합니다.(눅3:16 참조)

그런데 같은 성령도 시대와 땅의 여건에 따라 위력이 달라집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내린 성령은 불과 같은 성령이었습니다. 이때 마귀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이 새로운 무기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턱도 없습니다. 마귀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일전쟁 때 일본군이 제일 애먹은 것이 러시아의 기관총이었습니다. 워낙에 일본 사람들은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는,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이며, 이들의 장기(長技)는 육박전입니다. 즉 총자루 끝에 단도를 꽂고 적진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전술에 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숨을 걸고 쏠살같이 적진으로 돌격해 들어가도 러시아 군대가 따르르 하고 쏘아대는 기관총 앞에서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남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크게 희생을 내다가, 겨우 입수한 적의 기관총을 분해하여 연구한 끝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총을 만들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신무기인 기관총으로도 강적 일본을 패배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2차 대전 때에는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기관총 따위는 물론 골동품

이 되어 버리고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겨우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데 큰 무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70년쯤 지나서는 교인들 사이에 맥이 쪽 빠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불이 붙어 열성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즉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책망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마귀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마귀가 침투하면 하늘에서는 손을 달리 써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를 마귀가 사로잡으면 날로 믿음이 약해지므로 하늘에서는 손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봅시다. 마귀는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내린 불과 같은 한 증거의 성령을 가지고 마귀를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세례도 이처럼 한 증거 정도 가지고서는 명함도 못 내놓는데, 물세례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렵다는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옛날의 불과 같은 성령보다 몇 갑절 더 위력이 있는 성령이 내려야 하고, 또 실제로 내리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서 돌아가는 형편에 따라 당신의 사람을 내세워 적절한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시면서 일일이 참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땅에서 ‘만유를 회복하는’ 기틀이 마련 될 때까지 여호와와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사110:1, 행 2:35)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일단 당신이 들어 쓰신 종도 그 사명을 다 마쳤거나 또는 다하지 못하면 다른 종을 내세워 새로운 사명을 맡기든지, 아니면 앞선 종이 다 못한 일의 뒷수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대교체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는 세레 요한과 주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레 요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임직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움직였으나, 각자 자기 분야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레 요한이 할 일까지 간섭하지 않고, 세레 요한도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자기 사명을 끝냈던 것입니다. 말일 세레 요한이 제멋대로 하려고 했던들 주님의 일까지도 침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 세레 요한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세레 요한이 주님보다 더 우세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레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이며, 대예언자로서 위세가 당당한 반면에, 주님은 한낱 목수의 아들로 그 역시 목수 일을 하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세레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소위 권력

층이나 지식층에 속하는 자들 중에는 선생이 주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다리 놀음을 하여 두 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모로 보나 자기 선생보다 못한 자가 더 위대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언동은 세례 요한에게 일러바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주님께 고해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하늘이 내린 사람으로, 교권을 쥐고 있으며 돈 많고 권세 있는 자라, 만일 그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같은 하늘의 사람 둘이서 더욱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단 자기의 사명을 마친 후에는 깨끗이 물러나야 했을 텐데,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아무리 주를 증거해도 여전히 자기 그늘 아래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의 영역은 터치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계속해서 물세례만은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 3) 요한의 착각

그럼 여호와께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했는지 살펴봅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당대의 거물이므로 헤롯왕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헤롯왕은 동생의 아내 되는 헤로디아와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자, 그

를 감옥에 가둔 후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어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헤롯왕은 자기의 생일을 축하하는 연회 석상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해 주므로, 그 어린 딸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딸이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무척 당황하여 꽤나 고민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많은 신하들 앞에서 한 약속이라, 왕의 체면상 할 수 없이 목을 베어 오라고 일렀습니다.

한편 옥중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면회를 오는 사람은 가족과 제자들뿐이었는데, 이들은 물론 요한 자신도 주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옥에서 풀려나게 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세주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제자들은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저마다 큼직한 감투를 하나씩 얻어 쓰려고 잔뜩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주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임금도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온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요한의 감옥살이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세례 요한을 면회하러 간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곧 요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괴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가짜 구세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

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친 영적인 말씀은 임신출세를 노리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자신도 이런 깊은 영적인 이야기는 꼭 필요한 것만 언급하였을 뿐, 그나마도 대개 비유로 말씀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적, 기사를 많이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환자들의 병을 많이 고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입에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탄식이 나올 법하지 않을까? 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수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친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짜라고 생각한 것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감옥에 갇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자기를 건져 줄 것을 태산같이 믿은 요한의 귀에 날이 갈수록 괴상한 소리만 들려왔으니 말입니다. “선생님이 구세주라고 증거하신 그분은 뱃사공이나 세리 나부랭이들을 거느리고 허튼소리만 하고, 선생님께서 감옥살이로 고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으니 웬 일입니까?” 드디어 세례 요한은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니 제자들더러 주님을 따르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은 가로막는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보통사람이면 장본인 한 사람으로 그치지만, 세례 요한은 비중이 큰 하늘의 사람이고 보니, 말 한마디가 여호와와의 역사를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손

을 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결길로  
가거나 크게 어긋날 때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조처를 하신다는 것  
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영수가 지금 단에서 외치게 된 동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까  
닭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  
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  
고자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후에, 더 이상 감추어 두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나가서 열심히 전하라고 명령하시기  
에,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신학교란 문턱에도 못 가 본 사람으로, 오직 보  
여 주시고 지시한 것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  
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한다고 하면 나에게는 영광이 돌아올지  
몰라도, 주님께게는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이니 당  
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어리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깊은 사정을 세상 기독교 신자들한테 전하라  
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욕을 먹고 비방을 받을  
지 몰라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Part 03.

# 승리의 대열에서



21 사단아 물러가라! · 22 인(印)침에 대하여 · 23 남방여왕(南方女王) 이란? · 24 마음의 발을 갈라 · 25 하늘에서는 땅에 대하여 어떻게 움직이는가? · 26 두 감람나무를 증거한다 · 27 흑암 속의 빛 · 28 부활에 대하여 · 29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 30 내가 걸어온 발자취

## Chapter 21.

# 사단아 물러가라!



### 1) 주님의 시련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여호와로부터 맡은 분야만 관여하지, 그 밖의 일은 일체 터치하지 않는 법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태어난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는 날이 되자 몹시 긴장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내가 증거할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고 그는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물세례를 주고 있을 때 나사렛 동네의 예수가 얼굴에 유난히 광채를 띠고 자기 앞으로 걸어와 세례를 받더니, 홀연히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가 기뻐하는 자라.”(마3:16-17)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부터 주님을 증거하였으며, 이어서 그리스도의 구령 사업이 시작되는 동시에 요한의 사명은 끝나,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예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매우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터인즉, 나는 그의 신들메도 풀기 어렵다.”(눅3:16)고 자기를 낮추어 말하였습니다.

그는 예상과는 180도를 달리하여 오시리라 약속한 구세주가 자기도 잘 아는 나사렛 동네의 목수, 예수라는 것에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30년을 목수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은 그저 어안이 병병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여건과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초라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주님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 까닭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오.”(골10:14) 한 대로, 주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보여 주고 가르쳐 주신 자가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여 주고 가르쳐 준 자라고 해서 혼자서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맡은 분야의 것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곧 여호와의 종이며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으레 비

방과 공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지만 인간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목수이신 주님은 평상시엔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권세가 그의 손에 쥐어져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마귀는 이를 가로막는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당신의 과업을 이루시기 위한 구상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여 극도로 굶주리셨는데, 사단이 나타나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마4:3) 그런데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마귀는 이미 예수는 능히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보통 선지자 정도였던들 마귀가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한 번 슬쩍 떠본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에도 먹을 것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똑같은 수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은 먹는 일에 그만큼 약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당시의 주님의 여건으로는 굶주림이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주께서 만일 당신의 능력으로 마귀의 요구를 받아들여 돌을 떡이 되게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귀의 비위를

맞춘 것이 되므로 여지없이 시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마4:4)고 대꾸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물러가지 않고 수법을 달리하여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즉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성경에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하고 말입니다. 주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나 떠보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마4:6) 얼마나 거드럭거리는 말입니까? 이것은 마귀가 주의 원수라서 그렇게 내뱉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만만치 않은 적수(敵手)로서 으스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 버립니다.(마4:7) 그러나 마귀는 물러가지 않고 또다시 방법을 달리하여 덤벼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번에는 명예욕에 호소하여 주님을 쓰러뜨리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 주고,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노라.”(마4:9, 눅4:5-7)고 제의하였습니다. ‘천하만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산’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험의 장면은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산에 오른 것은 주님의 육체가 아니라 영이요, 천하만국을 바라본 것은 육안

(肉眼)이 아니라 영안입니다. 천하만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산이나 눈은 실제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만국’을 주님에게 주겠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남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는 호령으로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은 제3자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자들에게 간증으로 들려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 2) 말씀의 위력

이와 같은 내막은 실제로 비슷한 일을 당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항상 같이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께서 목수 일을 할 때는 잠자코 있다가 성령이 임하여 하늘과 교류가 시작되니까 그 중간을 가로막은 것이 곧 마귀였습니다. 하늘나라와의 영적인 내왕이 없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아무리 분주히 돌아다닌다고 해 봤자 마귀가 이런 차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를 하나님이 내세운 자라고 하더라도 하늘과의 교류가 없으면 가만두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계에도 왕초가 있고, 장수, 졸병이 다 있습니다. 주님

을 시험한 사단은 왕초가 아니라 왕초의 오른팔쯤 되는 놈입니다. 왕초는 여호와를 직접 상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광야로 이끌고 간 것은 성령이며, 따라서 주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같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께로부터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목수로 있을 때에는 한 집안의 가장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 전과 온 후에는 판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씨를 받아 태어난 자들이므로 성령이 우리 혼과의 연결이 잘될 때와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주님의 성령을 오래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때 묻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도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저(高低)와 기복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대하는 마귀의 태도도 일정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자기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알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들락날락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마귀가 덤벼들어도 뚫고 들어갈 틈이 없으므로 마귀는 침범하기를 포기합니다. 마귀가 주님을 세 번 시험한 끝에 떠나 버린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노릴 틈바구니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을 가리켜 ‘이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랬지만, 이긴자가 되면 입 기운을 불어 능히 마귀 떼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입 기운에 성신이 임하여 마귀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력을 갖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력은 주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면 말씀을 읽고 대수롭지 않은 구절 하나를 깨달아도 여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에 남이 미처 모르는 구절을 하나 먼저 알아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 중에 여호와와 대면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기쁨이 어떠한 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귀가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주님을 떠볼 때 그 마귀를 물리친 말씀입니다. 즉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보다 신령한 말씀을 몰라 굶주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단상에서 이영수의 입을 통하여 일찍이 들어 보지 못한 깊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인간 이영수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세대의 완악할 대로 완악해진 못 심령들을 다듬어 세우시려는 여호와의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일일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배우지도 못했고, 오랜 신앙 연조를 쌓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들어 쓰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마이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주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광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하여 당시의 모습을 소상히 전한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바울이나 그 밖에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에 대하여 발설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 ‘3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깊은 내막을 직접 목격하였으나, 이 사실을 밝히면 사람들이 자기를 천사처럼 받들까 봐 14년 후에 자신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닦인 후에 입 밖에 냈지만, 나는 그럴 염려는 없을 터이므로 말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마귀에게 한 대 먹었을 때 마귀는 벌써 어느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하여 마귀가 주님을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주님의 육은 광야에 있지만 영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 하늘나라, 곧 3층천에 올라갔을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고후12:2)고 말한 것은, 자기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들이 40주야씩 물 한 모금 마시

지 않고 금식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광야에서 그랬지만, 모세나 엘리야 같은 분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할 때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사로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간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어느 사람들의 경우처럼 마귀가 차지하고 있다면 놓아주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다시 소생할 수 없습니다.

깊은 영적인 이야기이므로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주님의 경우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40주야의 단식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물 한 모금 안 마신 정도면, 주님의 육신이 지상에 있기는 하지만, 그 영체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주야 산속에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있을 때 그가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던들 죽은 줄 알고 들것에 담아다가 묻어 버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광야에 천사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여건이 매우 어려우므로 천사가 옆에서 지켜 줘야 합니다.

인간의 혼이 아름다운 영체로 화하여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0주야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원리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사단이 지배했던들 주님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 3) 마귀의 간계

그럼 이야기를 다시 마귀의 시험으로 돌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때는 마귀가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경 말씀을 들어 자기를 때리니까 자기도 성경 말씀을 들고 나와 두 번째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즉 마귀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신출귀몰(神出鬼沒)의 묘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였으되”하고 때리니까, 마귀도 역시 “기록하였으되, 지켜 주마 했으니 뛰어내려 보라. 너는 안 다칠 게 아니냐?”하고 응수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역시 말씀으로 잘라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이런 식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영을 구분짓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다시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이 가는 것입니다. 영체로 화하면 만물이 한눈에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하

여 마귀는 주님이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제의한 것입니다.

천하만국은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여 다시 낙원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마귀의 세계에 와 있는 불청객(不請客)입니다. 하긴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주님에게 흥정 조로 나왔으나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는 한마디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귀의 세계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마귀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나 주님 또는 성령이 실재(實在)하는 것처럼,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마귀는 일종의 영체로 그 세계에도 높고 낮은 순위가 있습니다. 왕초 아래 제2인자, 막료, 졸병 등 위계(位階)가 서 있어, 상대방의 실력에 따라 마귀도 그에 걸맞은 적수(敵手)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마귀의 왕초이니, 광야에서 주님과 대결하여 시험한 놈은 제2인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마귀가 직접 건드린다면 그놈은 마귀의 졸병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아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찢찢매는 형편이니, 그것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진 몸이고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단과 싸우면서 느끼신 바가 많았을 것입니다. 30년간

의 사생활을 청산하시고 인류의 구속을 위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마당에, 성령을 받고 당하신 시험은 당신의 공생활(公生活)을 위한 시련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목수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오던 나날과는 감정과 사상이 전혀 달라졌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새삼 무슨 시련이 필요한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이 죄악 세상에서 거처하는 한, 이런 시련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존재였던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존재로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14)

## Chapter 22.

# 인(印)침에 대하여



### 1) 인의 의미

성경에는 소위 인(印)을 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인 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극히 일부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인침에 대해서도 아직 소상히 터뜨린 신학자나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을 친다’, 알기 쉽게 말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이 말은 물론 영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거기에는 반드시 인을 치는 자와 인침을 받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또한 이다말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하려고, 제사장으로서는 입어야 할 옷에 대하여 모세에게 소상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즉 흉패(胸牌)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冠)과 띠를 만드는데, 이 옷들을 짓는 실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끈 베실을 쓰되, 에봇에는 열두 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각각 새기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겉옷에는 금방울을 달아 제사장이 지성소에 출입할 때 옆에서 사람들이 그 금방울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印)을 새기는 식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冠) 위에 매어 관의 전면에 있게 하라는 등, 매우 소상하게 일렀습니다. 그 옷 한 벌의 값을 오늘의 시세로 따지면 무려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럼 어찌하여 제사장의 옷을 이와 같이 호화찬란하게 지으라고 지시하였을까요? 요즘 타산이 빠른 사람들은 옷 한 벌에 1억 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충 주먹구구로 쳐도 쌀 만 가마니 가까이 되는데, 그것으로 끼니가 간데없는 가난뱅이 한 사람 앞에 한 섬 꼴로 자비를 베풀면 무려 만 명 가까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하나님도 매정하지, 그래 옷 한 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게 한담!”하고 혼자서 혀를 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등에 값진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 이의를 제기한 것과 비슷한 사고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의 척도로 하늘의 일을 헤아려서는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낭비(?)를 인간에게 지시했을

까요?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하늘나라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세계에도 제사장들이 있게 됩니다.(계20:6) 그때 제사장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광 속에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여 죄악 세상에서 제사장의 옷이나마 그 영광에 부합되는 차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예복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을 드린다고 인 치듯 새겨 이마에 붙인 정금패(精金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인침을 알려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인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계7:4)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인침을 필요로 할까요?

나는 본래 예수와는 인연이 먼,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이상한 눈초리로 지켜보다가,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의 행위가 표리부동할 때 오히려 멀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났다가 육칠십년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는 믿어서 뭣하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친구 집에 가서 소위 예수쟁이들이 모여 앉아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절끔거리는 광경을 목격하면 그보다 더 꼴 보기 싫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가 하나님 봤나?’ 하고 나는 속으



로 향의하였습니다. 그러던 내가 아버지의 병환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여 내 몸에 직접 신이 임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할 뿐 아니라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불덩이처럼 임하는 신은 내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 이외의 다른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내 신경이나 심리 조화가 아니라 제3의 어떤 존재로 내게 오는 것이므로 나는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가까이하기 위해 애써 매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때로는 뒷동산에 올라가 소나무를 부둥켜안고 주님에게 가까이 가게 해 달라고 간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논두렁에 가서 푸성귀를 움켜쥐고 주님을 좀 더 분명히 알게 해 달라고 애원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나라가 어디쯤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묵묵부답(默默不答)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된 일이지만, 나는 이미 일종의 인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침이란 요컨대 성신이 임한 증거를 말합니다. 내 몸이 불덩이를 받은 것처럼 갑자기 확 달아올랐을 때 나는 이미 인침을 받고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할 뿐더러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은 이 인침을 받고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자 굴에서 기꺼이 죽어 가고, 십자가에 거

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신약시대의 인침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약시대의 인침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양상이 다르고, 내리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인 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임금들은 반지에 도장을 새겨 그것으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사형수를 교수대에 올려놓으면 대통령이 사인을 하여 결재를 하는 것처럼, 당시의 임금은 반지의 도장을 눌러 목 베는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즐며 깊이 잠들 때에나 밤의 이상(異象)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 치듯 교훈하시나니”(욥33:16)의 인침도 육적인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의 혼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인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영적인 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이며, 그 증거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싸움에서 인간의 혼이 인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일반 혼과 영을 받은 혼, 즉 영혼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교회에 은혜가 많으나, 저 교회에 은혜가 많으나, 박 목사가 신령하냐, 이 목사가 신령하냐,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50보, 100보지만, 이러니저러니 말꼬리가 그치지 않는 것

입니다.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당사자의 신앙 자세나 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 기준은 주와의 연결이 잘되고 안 되는 데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평안을 얻으며 누추한 생각 대신 고귀한 생각을 얼마나 하게 되었느냐, 말과 행실이 얼마나 달라졌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면 아무래도 자기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집어쓴 악령은 혼자서 철야 기도를 천만 번 하여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놈을 소탕할 수 있는 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안수하여 성령을 부어 주는 동시에 그 손길로 악령을 몰아낼 수 있는 주의 종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요즈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손길은 단지 고명한 부흥사나 목사라고 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사도시대 이후 근 2천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 2) 할례와 인침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고후 1:22)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는 것은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는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인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도장은 구속(救贖)을 얻는 날까지 유효하게 됩니다.(엡4:30) 그리고 그동안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은혜 사슬 되어 나를 주께 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살면서도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침을 받지 못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덕망이 높고 학식이 뛰어나도 인침을 받은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무식하고 못나도 얼마든지 인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준과 땅의 그것은 그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해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의 관례입니다. 고넬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로 믿음이 독실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즉 인치는 자가 없으

면 인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도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나타나자 점점 은총이 견히기 시작하면서 약해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주의 사도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방법과 태도에서 두 사람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전9:2) 바울은 자기가 지지자들에 의해 주 안에서 사도라는 인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침은 어떤 인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군병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죽음을 면한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인침을 받으면 그날에 해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계9:4)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식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싸움터에 나가는 군사가 식량을 손수 마련해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쯤 잘 알고 있었으며,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상대방에게서 먹을 것을 거두기로’ 거리낄 것이 없을 터이지만, 그런 목회자의 특권을 일체 보류하고 참았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으로나마 주님의 상(賞)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까지 거느리고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고전9:5) 이것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지만, 바울과는 이렇게 대조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계7:1-3)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어떤 특정 인물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온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각각 일정한 소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내리는 천사가 있고 화를 주는 천사가 있으며 인치는 천사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또 주님에게 힘을 주는 천사가 있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 낸 천사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용에 맞서 싸울 천사장 미가엘(계12:7)은 아직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은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을 예고하고(눅1:13-19) 마리아에게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예고할 때(눅1:26-33) 분주히 활동하였으며, 또 지금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는 천사는 아무에게나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인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 인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이룬 사람에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늘과 땅에서 반반씩 합작하여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치는 사명을 맡은 자가 땅 위에 나타나지 않으면 인치는 천사는 내려오지 않고, 인치는 천사가 떠나면 인치는 사명을 맡은 자의 권능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알기 쉽게 표현한 말이며, 이마에 도장 찍듯 인을 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이 인침은 성령의 인을 가리키며, 지금은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의 혼을 사이에 두고 겨루는 시대이므로 그 혼에 성령의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 맞은 자의 수는 각 지파 중에서 도합 14만 4천 명이라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 구약시대의 육적인 야곱의 자손에서 갈라진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므로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즉 이긴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적인 열두 지파입니다. 또한 ‘해 돋는 데’서 천사가 올라온다는 해 돋는 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 역사가 비롯되는 새 아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장을 찍을 때 희미하게 찍히는 경우와 뚜렷하게 찍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도장도 우리의 혼에 희미하게 찍히는 경우와 뚜렷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은 뚜렷한 인침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희미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똑같은 생명책

에 기록되어도 똑똑히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계시로 목격한 바로는 생명책 두루마리의 앞부분에 기록될수록 이름이 선명하고 뒷부분에 처질수록 이름이 희미하였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법도와 규례가 정해져 여호와와는 이에 따라 움직이며, 천사들 사이에는 많은 계급이 있어 각각 직분이 다릅니다. 이 하늘나라를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새 나라가 임할 때까지 불가불 주께서 왕 노릇하며(고전15:25) 많은 천사들이 각각 그 직분에 따라 성도들과 교통을 하여 그 움직임을 주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영의 세계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본의 아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곧 천사를 통하여 주님에게 알려집니다. 그리하여 눈물 뿌려 깊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죄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침과 생명책에의 기록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한 것처럼,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나중에 영의 세계에서 전쟁을 할 하늘나라 군병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할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육적인 피의 언약이었으나, 인침은 성령으로 증거하는 새 언약, 즉 주의 기록하신 보혈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빚어진 새 언약입니다.



## Chapter 23.

### 남방여왕(南方女王)이란?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의 존재로 계셨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스테반이 순교할 때 여호와 의 우편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은 주님의 육적인 족보와 지파에 대한 것입니다. 사가랴와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이룬바 아론의 반열에 속한 레위지파이고, 요셉과 예수님은 유다지파로서 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의 위치에서 보면 존재가 없는 비천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사53:2)라는 말씀 그대로,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러보이지만, 당시의 인자(人子)이신 주님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난 귀한 신분으로, 그의 권위와 발언의 공신력(公信力)은 대단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 예비자로 등장하여 외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하고 물은 것으로도 우리는 당시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가 나사렛 동네의 목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하여 외면한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세주요, 메시아인 주님은 당신의 크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로 끝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늘의 제사장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도를 뒤집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아론의 반차보다 차원이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론의 반차를 통하여 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땅에 속한 제사장밖에 될 수 없었으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운 제사장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가버나움회당을 본거지로 하여 하늘의 도를 전하실 때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그중에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게한 이적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과연 놀랐습니다. 그

리하여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내리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린 것처럼 계속해서 떡을 배불리 먹여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적과 기사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 저마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에 감탄했으며, 주님 편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당신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그들의 관심은 이적 자체에 집중되고, 소중한 설교 말씀은 귀 밖으로 흘러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특히 민노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이적과 기사에 대하여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가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누가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이적을 보고자 하나이다.’ 예수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적을 구하나 … 심판할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왕이 땅 끝에서 나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

12:38-42)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낱알이 책잡고 비방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주님에게 이적과 기사를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적을 구한다고 음성을 높이셨습니다. 하나의 방편으로 행하는 이적을 저들은 끝

까지 목적으로 오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죄과를 뉘우친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 성실치 못하고 믿음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나서, 마지막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비꼬아 주었습니다. 즉 니느웨 백성들은 고사하고 스바 나라의 여왕에게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성의를 호되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심판을 받을 정도라면 구원이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여기 나오는 ‘남방 여인’은, 솔로몬 왕 당시에 남방의 스바라는 작은 나라의 여왕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다스린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총명하고 지혜로워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 황금 마차를 타고 금은보화를 예물로 갖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까다로운 질문 공세로 솔로몬 왕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왕상10, 대하9 참조) 그래서 주님은, 말세에 남방 여왕이 나타나 실제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큰 존재인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시험하려고만 드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나한테서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스바의 여왕에게서 심판을 받아도 싸다고 쏘아붙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서는 하나의 풍자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점점 더 적대시하여, 주께서 무수한 병자들을 고쳐 주자, 주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무를 비유로 들어, “나무가 좋으면 거기서 열리는 실과도 좋다. 실과는 좋은데 나무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공박하고 나서,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막3:23)고 반문하였습니다. 바알세불이 사귀 들려 앓는 자의 악령을 몰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귀 대장이 자기편인 마귀를 내쫓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Chapter 24.

# 마음의 밭을 갈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나와 먹어 버렸고, 더러는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마13:3-8)

이 주님의 말씀은 믿음을 간직하고 은혜를 간수해 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비유로 알기 쉽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세 가지 밭 가운데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냉정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자 알아서 자기 밭을 애써 가꾸어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 떼들에게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곧은길이고 저것은 곁길이라고 가르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밭길을 일일이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며 이 자유를 제3자가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당신의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을 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가 부여되어 있으며,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죄짓는 것을 못 짓게 할 수도 없고, 죄 안 짓는 것을 짓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운데 놓고 마귀와 싸우는 하나의 규례입니다. 세상 전쟁에도 국제법이라는 규례가 있어 포로를 서로 교환하고 적의 부상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규례에 따르게 마련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직전에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코 있었다면 하나님은 매우 무자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일단 자유의지(自由意志)를 허용한 이상, 거기까지는 간섭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의사(意思) 발동을 어디까지나 존중하는 것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미연에 제지하지 않고 있다가 일을 저지른 후에야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실수로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저지른 후에 교체를 하거나 적절한 탄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한 보기로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에덴동산에서 흠과 티가 없이 지음 받은 아담, 하와가 범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이 불리하게 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만만치 않은 적수(敵手)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하나님을 넘어뜨릴 정도로 강하지는 못합니다. 마귀에게 패할 수도 있는 그런 약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을 다시 상고해 봅시다. 거기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1:23) 내가 늘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려면 우선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 온 사람들 중에는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뉘고 하니, 입버릇처럼 자주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돈 몇 푼 생겨도, “주여!” 콩나물 한 번 볶아 먹어도, “주여!”합니다. 그야 물론 주님을 부르는 것이 나



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쉽사리 “주여! 주여!” 하는 그 말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 느낌이 담겨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주여!” 소리가 입에 배어 건성으로 주님을 백 번 불러 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 자신이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와 같이 입에 자주 주님을 들먹이는 것을 마치 진실한 성도의 태도인 양 착각한다면 그야말로 큰 오산입니다. 이런 외식적인 극성파에게 마귀가 침노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밥이 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입술로는 열심히 주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사사건건 마귀의 조정에 움직이면서도 구원은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말씀의 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신령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사로 넘겨 버리는 사람은 이를테면 씨를 길가에 뿌린 격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통하여 은혜를 무진장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간직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을 뿐더러, 숫제 받지 않는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쏟아 버렸을 경우에 그만큼 마음이 더 강박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더욱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무작정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간직할 만한 그릇부터 갖추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듬어져 하늘에서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가운데 악의 세력을 꺾어 무찌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전제 조건입니다.

세상일을 두고 보더라도 공짜로 생긴 돈은 헤프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하늘의 선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씀에서 멀어지면 받은 은혜를 쏟아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쏟으면 또 받지!” 하는 배포가 생깁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중한 은혜를 받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기 자신이 길가도 아니요, 자갈밭도 가시밭도 아닌 바로 옥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자기 자신을 냉정히 돌이켜 보십시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신앙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깊이 자기 자신을 알고 보면 아직도 옥토가 되기까지는 아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이런 가혹한 자기반성이 항상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되지 못하고 된 체하는’ 착각은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가 오늘날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위대한 영의 역사가 완전히 육의 역사로 끝나가고 있습니까? 그 까닭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컨대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씨를 아무 데나 마구 뿌려 받을 잘 가꾸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일어난 이 역사는 우선 자갈밭과 가시밭을 잘 지경하고 거름을 주어 옥토를 만든 연후에 씨를 뿌려 결실하도록 하려는 것

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다듬어 그 심령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고 심정이 아름다워지면 은혜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래도 은혜가 안 온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도깨비의 장난인 것입니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은혜는 제 발로 걸어오게 마련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섬겼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발이 잘 지경이 되어 옥토로 변하면 남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여 은혜의 문이 열리게 마련입니다. 혹시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나, 우리 역사에 손해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팔이 모자라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사59:1)고 지금도 한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선 마음의 발을 갈아 씨를 가꿀 여건부터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 Chapter 25.

# 하늘에서는 땅에 대하여 어떻게 움직이는가?



### 1) 하나님과 선지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의 맨 처음 성경인 창세기를 비롯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른바 모세 오경(五經)에서부터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걸친 39권의 성경의 저자들은 각자 받은바 은혜의 비중에 따라 여호와와의 음성과 계시와 가르침을 토대로 구약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가령, 은혜를 받아 70% 이루어진 분은 70%, 80% 이루어진 분은 80% 하나님의 의사를 대변하여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 구약 할 것 없이, 누락되거나 전후가 뒤바뀌거나 중복된 것 등이 적지 않아, 결코 100%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를 보충하시기 위해 “다른 보혜사(保惠師), 곧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죄와 의(義)

와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요16:8)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모세 오경(五經)은 모세를 주축으로 하여 기록된 것으로, 특히 창세기는 지금부터 약 3,400여 년 전, 모세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먼 옛날에 일어난 우주 창생의 옛 이야기이므로, 여호와께서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기록하는 데 여간 고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구약의 제1인자로 당대의 율법이 그를 통하여 세상에 반포되었으며, 자기를 주님과 견주어, 나중에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말할 정도였으나, 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 실패자였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6,000년 전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퍼뜨린 후손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 6,000년이라는 시간은 여호와의 은혜 시대가 비롯된 이후의 연대이며, 결코 지구의 나이는 아닙니다.

모세는 80세에 여호와의 은사와 권능을 받아 역사한 대선지자로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주의 창생과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보여 주신 것을 기록하였으나, 오늘날과는 달리 종이나 문자, 인쇄술 등이 형편없는 때이므로 그 불편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양 가죽 두루마리 양쪽 끝을 막대기로 뿔뿔 말아, 손수 한마디씩 써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선민(選民)으로 단일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간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며, 이를 간수하는 사람은 가보(家寶)로서 대대로 물려주고, 낡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다시 복사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전해지는 가운데, 때로는 전화(戰火)로 일부 소실되기도 하고, 때로는 곰팡이가 끼는가 하면 또 때로는 부주의(不注意)로 분실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문맥이 뒤틀리거나 짝이 맞지 않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보충할 수도 없는 것이, 여호와께서 처벌을 내릴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 낭독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풀이를 아울러 하였습니다.

무릇 하늘의 여호와와 땅의 인류 사이에는 영적(靈的)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인류 역사를 이끄실 때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그때 땅의 여건에 따라 적절히 지시를 내려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3일 전에 A라는 선지자에게 내린 지시와 오늘 B라는 선지자에게 내린 지시도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갖은 고난을 받으면서 광야를 지나가야 했을 때 이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줘야 했지만, 환경이 다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오늘날은 역사를 마무리하여 여호와 앞에 의로운 자를 다듬어 세우는 때이므로 은총도 여기에 적합한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울 왕이 통일된 유대 나라를 세운 후로, 다윗 왕 때

나라가 강대하여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제압하더니, 다음의 솔로몬 왕 때에 국력이 위축되어 나라가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으르렁거리며, 여호와를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 여러 모로 계율을 범하므로 여호와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고 당신의 품에 돌아와 화목하게 지낼 것을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선지자에게 내리는 지시와 믿음이 독실할 때에 선지자에게 내리는 지시가 다르며, 또 넓은 지역을 맡겨 역사하는 대선지자에게 내리는 지시와 한 지역만 맡겨 역사하는 작은 선지자에게 내리는 지시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기어코 이루시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입니다. 만일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는 동시에 다른 선지자로 교체하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지시를 내려 시정하시게 마련입니다.

그럼 여호와와는 학개 선지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살펴봅시다. 학개 1장 이하를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호와의 말씀 자체는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선지자 한 사람을 들어 쓰시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왜 내세웠을까

요? 그것은 당시에 웅장한 성전을 짓는 것은 거국적인 대공사이므로 정치 권력자와 신앙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시는 역시 선지자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선지자란 여호와와의 대행자로서 각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분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학개는 이사야나 다니엘과 같은 대선지자와는 달리, 극히 소규모의 일, 즉 전화를 입어 다 부셔진 성전을 세우라는 임무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신을 부어 주어 심령을 다듬어 세우는 신약시대의 사도에 비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임무는 대단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모세도 바울을 따르려면 아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한두 구절에 치중하여 풀이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원리에서 풀어야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엮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난해하여 해석이 구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감히 풀 수 없으며 누구나 읽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통틀어 결국 여호와와 마귀의 싸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자기가 마귀의 편에서 움직이고 있는 줄도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을 믿되 그것이 여호와에게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요일4:1)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크신 경륜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당신이 세운 선지자에게 미리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개에게 거국적인 사업으로서 외적에게 파괴된 성전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움직임은 그 원리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학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곧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으며, 여호와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전을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물론 유다 총독이나 대제사장까지도 학개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이들이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여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학개의 말을 듣고서도, “네까짓 게 뭘데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지시를 내리겠느냐?”하고 외면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 “할 수 없군.”하고 손을 툭툭 털고 단념하시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재앙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루시려는 뜻이 가로막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무능한 여호와는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겉모양이 그럴듯하여도 당신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 1,000명보다는 합당한 자 1명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숫자만 많으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얼마 안 되는 수가 모인 이곳을 각별히 기억하시는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단 정하신 일은 기어코 이루고야 맙니다. 다만 빨리 이루느냐, 더디 이루느냐 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같이할진대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손으로 안찰하여 악신을 가려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내가 무슨 수로 이런 일을 꿈이나 꾸어 보았겠습니까? 주께서 시키시매 그대로 하니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손이 악신을 받은 자의 눈에 한 번 닿기만 하면 금세 까무러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듬어 세우는 가운데, 나는 수가 조금만 더 늘고 심령이 안정되면 또 다른 은혜가 내린다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대로 오늘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는 은사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심령이 다듬어지고 좀 더 숫자가 늘면 더욱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거짓인지 두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땅의 움직임과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하늘의 지시와 은총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는 오늘날 이 땅에서 주의 피를 헛되이 낭비한 데 대한 여호와와의 진노를 하루 빨리 풀어 드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바다에서 네 큰 짐승이 나오는’ 4대 강국의 시대로, 환난은 바다에서 먼저 일어나 ‘육지의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 세대에 끝맺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낱알이 보여 주시는 것은 앞일을 내다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책임도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곳에 나왔을 때의 자기 심령과 지금의 심령 사이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각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야흐로 새로운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영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 2) 학개

나는 학개 선지를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어떻게 부리는가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개서 2장 1절에 보면, “7월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장 1절에 있는 말씀, 즉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후에 50일쯤 지나서 두 번째로 여호와와의 지시가 다시 온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의 첫 번째 지시를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못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차적인 정치작업을 일단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요컨대 “내가 너희 중에 머물러 있으니 기운을 내라.”는 격려와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학2:9) 하고 당대와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이때 당대의 일과 앞으로 될 일들을,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대로, 미리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께서 들어 쓰시는 선지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상징인 총독 스투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움직일 경우에도 여호와가 직접 하지 않고, 일단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였던 것이며, 당신께서 명령하여 지으실 성전이 당대와 앞날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또다시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시를 내리신 지 두 달쯤 지나 세 번째 지시가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한꺼번에 다 지시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보아 가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일 두 번째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 번째 말씀을 주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백성들이 불신하거나 불응하면 다음 지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선지자를 들어 쓰시는 기본 원칙으로,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에게 여호와의 지시가 와서 “단에 서라.” 하시기에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단에서 쫓겨나자 한동안 편히 쉬려고 했더니, “추수감사절을 전후하여 동쪽에 따로 제단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곧 내려오므로 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여러분의 심령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안정이 되니, 말씀으로 다듬는 데 그치지 말고 “성령을 부어 주고 씻어 주라.”는 지시가 와서 나는 또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성회가 좀 더 차고 넘쳐서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리면 그때 내리는 축복은 지금의 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그때그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적절히 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학개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나아가서는 율법에 대하여 말

씀을 주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니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하고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매우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는 오늘날과 같이 자유의 율법에 의해 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 육을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법도에 어긋나지만, 구약시대에는 육적으로 범죄하는 것만 문제 삼고, 이 경우에 심한 범죄자를 끌어다가 못사람이 보는 앞에서 직접 돌로 쳐 죽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란 다른 아님 그들 선민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만 통용이 되고, 그 후 영을 다스리는 자유 율법 시대에 들어오면 육에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에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정성껏 그 은혜를 간직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이 성령에 속하면 구원을 얻고, 우상을 섬겨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와 마귀의 싸움에서 구약시대는 첫째 싸움, 즉 육의 싸움인 반면에, 신약시대는 둘째 싸움, 즉 혼을 두고 양자가 겨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 셋째 싸움은 영과 영의 싸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이 싸움에 출전하며, 여기 앞장선 두 감람나무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계11:7) 그곳이 바로 영적으로 ‘소돔’ 또는 ‘애굽’이라는 곳이며, 이들은 사흘 반 만에 부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침은 성령의 표지로, 주의 보혈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보혈을 마시고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모면한 것은 인침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럼, 아까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육적으로 움직인 시대에 옷자락에 싼 거룩한 고기가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한 음식물이 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출 29:33, 렘46:20) 그러나 학개 선지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거룩한 음식에 다른 음식이 닿아도 거룩하게 될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물을 바치고 백성의 죄를 여호와에게 고하여 그 죄(자범죄)를 사하도록 하

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고기가 다른 음식에 닿아도 그것이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가 제사장들의 제사를 받아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단이 막히고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대답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 몸부림치면서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아직은 성전이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일 이때 학개 선지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던들 그 제단은 영원히 막혀 버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목메어 간구해도 냉랭하고 킬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사장들은 솔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학개에게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 너희는 오늘부터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던 때를 추억하라.”(학2:14-15)

그런데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이 왜 부정할까요? 성전 건축을 중단하였던 그들의 움직임이 여호와의 눈에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학개로 과거를 회상케 하는 가운데,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 스룹바벨아 … 너로 인을 삼으리니.”(학2:21-23) 즉 스룹바벨을 증거자로 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원래 스투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믿음 안에서는 선지자 학개와 비할 바가 못 되는 존재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이처럼 높이 들어 쓰시기로 한 것입니다.

여호와와는 우리 인간에게 혼을 주셨으며, 그 혼에는 ‘자유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책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인간이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게끔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종의 여부는 인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인간이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복을 내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늘의 상례입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지 않았느니라.”(학2:17)는 말씀이 바로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여호와의 두려운 측면도 잘 계산에 넣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 3) 스가랴

다음은 스가랴 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나이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두 선지자에게 내린 여호와의 계시에는 중복된 시기도 있습니다. 즉 다리오 왕 2년 9월까지 학개에게 계시를 보여 주시는 한편, 스가랴에게도 같은 해의 8월부터 계시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만 이때 스가랴는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서도 앞선 종 학개가 아직 일하고

있으므로 잠자코 있다가 그가 소임을 마친 후에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동시에 두 선지자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호와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을 내려도 학개 선지가 있는 한 구체적인 사명을 맡기지는 않고, 대략 변죽만 울려 힌트를 줄 뿐이었습니다. 즉 그 내용은 백성들이 조상을 본받지 말며 회개하고 여호와에게 돌아오라는 것으로,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후 약 3개월쯤 지나,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와의 말씀이 임하여” 본격적인 지시를 내리는 한편, 학개에게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족보를 따져 기록한 것은, 당시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 혼동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스가랴에게 보여 주신 계시는 스가랴 1장 8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것은 이러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네게 보이리라.’”하고, 그 말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천사, 선지자, 그리고 여호와가 보내신 자, 즉 말들 — 이렇게 네 존재들이 등장하여 서로 긴밀한 관련

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모습에 대하여 묘사한 성경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들 천사를 성화로 그럴 때 그렇게 고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스가랴의 눈에 보인 이 여러 가지 색깔의 말들은 실상 여호와께서 보낸 천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나 스가랴의 경우는 물론, 모세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에게도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으레 영적인 내용을 육적인 것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움직이는 구약시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백마니, 홍마니, 스룹바벨이니 하고 말씀하신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또 이 육적인 것도 당대의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를 보는 장본인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개의 경우에 잘 아는 총독 스룹바벨을 보여 주지 않고, 생전 보도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 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개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후로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 보여 주시는 계시는 당연히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영을 구분 지어 죄를 소멸하고 여호와 앞에 다듬어 세우는 이 역사가 얼마나 중차대(重且大)한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달고도 오묘한 말씀이 터져 나가는 것은 그 때문이며, 성경 66권이 끝을 맺고 역사의 종말을 짓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에게 보여 주신 여호와, 천사, 선지자, 이렇게 해

서 백성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경로는 여간 복잡하지 않습니다. 즉 말들은 천사에게 고하고, 천사가 여호와에게 아뢰어서, 여호와와는 천사에게, 천사가 스가랴에게,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 이런 경로를 거쳐서 의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여호와와 일문일답을 한 선지자는 모세를 비롯하여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즉 모세는 여호와와 직통한 구약시대의 가장 큰 종이었으며, 모세가 주님을 가리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한 것은 이처럼 천사를 거치지 않고 여호와와 직통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으로 움직이게 되며, 여호와께서는 여기 등장하는 천사나 말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직접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를 담당해 줍니다.

하긴 인간의 혼이 여호와의 은총으로 여호와 앞에 직접 가는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을 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혼이 육체에서 떠나 3층천에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이상 중에 영적으로 주님께 이끌려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궁창 위에 궁창이 있다는 말씀대로, 세 번째 궁창에 가서야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3층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고후12:2) 바울은 이 3층천에 갔다 온 지 14년이 지나서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발설하였지만, 그 후로 죽음을 두

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죽어도 죽지 않음을 확신하고 대담하게 말씀을 증거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선 여호와께서 움직이는 하늘의 원리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다져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듬어 세우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소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아로새겨지는 신약시대의 종말을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생전에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신과 같이할 때, 마귀는 여러분에게 범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피하여 쫓겨 다닐 것이 아니라, 그 경지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 4) 영과 육

스가랴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즉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척량(尺量) 줄을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 예루살렘을 척량하여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슌2:1-2) 하였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에게 계시로 보여 준 이상의 한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때때로 여러 가지 모습

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천하만국을 한눈에 본 것은 육안으로서가 아니라 영안으로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바울의 육신은 어디 있으나 무방합니다. 나에게 여호와께서 하늘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 주신 것도 이치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스가랴에게 보여 준 이 이상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의 계시의 연속으로, 직접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성경 구절에 부딪치면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나 부흥사도 이런 대목은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2장 1절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천사입니다. 스가랴의 눈에 천사가 한 사람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네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척량하여, 그 길이와 넓이를 알고자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길이와 넓이를 잴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는 믿음의 척도를 헤아려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 하되, 성전 밖의 마당은 그냥 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척량’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척도, 즉 의(義)의 분포도를 헤아린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상징적

인 의미로 가려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 주신다고 하더라도, 각자 맡은바 사명에 따라 그 분야가 다르므로,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보여 주신 분야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여 주신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보여 주신 것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그대로 기록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천사에게 질문했더니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해 두어라.”(단12:8-9)고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여호와께서 씻어 세워 주시고, 마지막에 성서의 종지부를 찍게끔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일생을 성경 연구에 바친 위대한 신학자도 감히 풀지 못하는 구절들을 풀 수 있겠습니까? 하긴, 내가 보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서에 보면 여기에 대해 분명히 못을 박은 구절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느니라.”(암3:7)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오려면 땅에서도 그럴 만한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학개를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땅에서 지체 없이 착착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땅에서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와 입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환난을 안겨 주는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예컨대,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길으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학3:16)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을 듣는 백성들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사자 앞에 서고, 사단이 그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스가랴에게 보여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여호와와 사자 및 사단의 위치가 각각 3각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대적 관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반드시 사단이 훼방하게 마련입니다.

여호와와 스가랴에게 보여 주신 계시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 사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것을 더럽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스가랴 선지자이며, 여호수아 자신은 그런 줄도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대제사장은 이만큼 격이 다른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하시고는,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시니 “여호와와 사자는 여호수아의 곁에 섰더라.”(슥3:5)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는 어찌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었을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학개를 통하여 여호와와의 말씀을 전해 듣고서도 청종하지 않았던들 이런 은총이 내려질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약4:8)는 말씀으로 나는 대답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당신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한 이와 같이 친히 씻어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서 유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웠더니 여호수아의 앞에 있던 여호와와 사자가 곁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사자의 위치가 앞에서 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앞과 곁은 거리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므로 사단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천사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실을 목격한 스가라는 자초지종에 대하여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기뻐하였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죄를 도말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입을 통하여 달고도 오묘한 말씀이 터져 나가고, 이 손길을 통하여 악령을 소탕하는 큰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이가 따로 계십니다.

여호와와는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키면 당신의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와 네 앞에 앉은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슥3:8)고 하셨습니다.

여기 ‘예표’라는 말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나타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에서 ‘순’은 곧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난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사11:1) 또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사53:2)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의 형틀을 지게 하여 대속의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슥3:9) 버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요5:39)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 Chapter 26.

# 두 감람나무를 증거한다



### 1) 스가랴의 이상

우리는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죄가 날로 도말 받고 점점 줄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지, 결코 그 반대가 되어, 날이 갈수록 죄를 덧입는 생활을 해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오랜 신앙 체험을 해 온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자기 신앙은 자신이 잘 알기 마련입니다. 남이 아무리 우러러봐도 자기가 날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나와 주의 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그 거리는 점점 좁혀 가고 있느냐, 멀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수시로

주님과의 거리를 재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데 모여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킁킁하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갖은 어려움 속에서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시는 정성도 물론 무뎠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에 주님이 받아 주실 만한 거룩한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막히는 담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느라고 수고하고 있지만, 그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상달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 식구들은 한 사람도 헛수고를 하는 사람이 없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각자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마귀에게 양보하지 말고, 각자 생명줄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상을 통하여 터져 나가는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이루어진 정도껏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선 무슨 뜻인지 헤아려 깨닫는 지각과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나는 것 같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천사가 나를 깨우니” 하는

말과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나는”이라는 말을 연결시켜 보면, 분명히 스가랴가 실제로 잠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혼미 상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걸 실제로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상을 보여 주실 때 그 광경과 설명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슌3:9-10)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호수아는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 것을 보는 동시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 주실 때는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을 보는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스가랴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스가랴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간접적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여 주실 때의 경우입니다.

스가랴서 4장은, 3장과는 달리, 간접적으로 주시는 계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주시는 계시입니다. 3장과 4장의 계시는 이어서 보여 주시는 것인데, 3장의 계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보여 주시는 것이고, 4장은 직접 스가랴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3장의 장면을 보고 있다가 4장의 장면을 보는 순간 스가랴는

3장의 장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나타나므로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의 스가라는 이상 중에 정신이 몽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천사가 와서 탁 치는 순간 제정신이 들어 잠에서 깨어난 듯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정신이 든 스가라의 눈에 보인 광경은 이러했습니다.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管)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다.”(슥4:2-3) 이 등대는 순금으로 되어 있으며 등잔을 올려놓는 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등대 위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다시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잔 꼭대기 등대에 일곱 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좌우로 서 있는 것입니다.

## 2) 스투바벨과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선지자 학개를 들어 쓰시고, 그 보좌역으로 당시에 정치적으로 권세가 제일 큰 총독 스투바벨과 제사장의 어른 격인 여호수아를 불러들여 역사하시다가, 학개가 늙게 되자 젊은 스가라를 들어 쓰셨습니다. 즉 학개에게 내리신 지시를 끊으면서 스가라에게로 새로운 지시가 갔던 것

입니다. 이를테면 세대교체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라의 경우는 원만한 세대교체가 되면서 전자를 따르던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을 비롯한 여러 무리들도 후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모세의 배턴을 여호수아가 이어받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후계자가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대체로 당신의 종을 부릴 때, 두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상례입니다. 다만 선지자는 언제나 당대에 한 사람씩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 역사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일 두 선지자가 나와서 각자 엇갈린 주장이라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어느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할지 갈팡질팡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세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란 이를테면 여호와의 대변자인데, 만일 정부에 두 사람의 대변인이 있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한다면 국민들은 어느 말이 대통령의 진의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여 국정에 혼란을 가져올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언제나 한 사람이 나와 여호와의 뜻을 대변하며, 필요에 따라 교체하게 되면 앞선 자에게는 여호와의 지시가 자연히 끊기게 마련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들어 쓰시며, 또 그 소임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총독 스룹바벨을 크게 보았지만, 언제나 당신의 종을 통

하여 뜻을 전한 것을 보아도 저간의 소식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가 순금 등대와 그 주위의 신기한 이상을 보고 천사에게, “이게 뭘니까?”하고 물었을 때 천사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슌4:6)고 하였습니다. 찬송가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즉 “힘써도 못하고, 울어도 못한다.”는 구절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힘을 쓰면 얼마나 쓰고, 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쓰지 말고 사과나무 밑에 드리누워 사과가 입으로 떨어져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일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며, 당신의 할 탓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순금 등대로 어둠을 환히 밝히고 두 감람나무를 내세우시는 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하시는 일이므로 인간이 감히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등대를 처음 만든 것은 모세였습니다. 즉 모세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순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그림자로서, 그 모양에 대하여 성경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출25:31)

그런데 어둠을 밝혀 인간을 죄에서 건져 내는 순금 등대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성소에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금향로도 놓여 있습니다. 이 금향로에 향을 피우고 제사장이 속죄의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가 향의 연기를 타고 여호와에게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께서 당신 자신을 한꺼번에 제물로 드려, 성도들의 기도가 직접 하늘나라에 상달됩니다. 여러분이 아무 준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여호와에게 예배로 제사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 3) 감람나무의 사명

천사가,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성신으로 된다.”(슌4:6)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 스가랴에게 전한 후에,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슌4:7)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큰 산’은 백두산이나 히말라야 산과 같은 육적인 산이 아니라, 죄의 터미, 곧 죄의 산을 가리키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그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하고 외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머릿돌이란 건축의 가장 요긴한 돌이며, 총독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가 성전을 짓는 데 지대를 마련하는 큰 구실을 했기 때문에 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축에서 제일 요긴한 이 돌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마21:42)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기만 하면 저들은 일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의 처형은 오히려 단번에 죄악을 제거하는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성전의 대지를 제공하고 머릿돌을 내놓았으나, 장차 올 성전의 머릿돌은 예수로,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실제로 세운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큼니다.(계21:16) 돌에 새긴 ‘일곱 눈’을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와 눈’이라고 하였는데,(슌3:9, 4:10) 돌이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알면 곧 납득이 갈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로서 그 눈은 세상을 두루 살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받으신 여호와와 눈이 번뜩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계5:6) 그야말로 무소부재(無所不在)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살피는 권능의 눈이요, 영적인 눈입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후세에 나타날 두 감람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슌4:9)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손길로 악령을 소탕하고 성령을 못사람들에게 부어 주는 역사를 하는 연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지만, 말씀 그대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슌4:10)할 것이 못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작은 일’로 보이더라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결코 작을 수 없으며, 반드시 크게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성전의 지대를 놓은 스룹바벨의 손에는 ‘다림줄’이 쥐어져 있습니다. 다림줄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준 영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림줄은 끝에 추를 매달아 똑바로 드리우게 한 줄로서, 오늘날에도 돌이나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건축자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와 같이, 스룹바벨은 건축, 곧 성전을 짓는 데 여호와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요긴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감람나무에 대하여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경을 편리할 대로 적당히 왜곡하거나 주어다 붙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살아 계신 여호와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가라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금 기름이 흘러 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천사는 이들이 기름 발리운 자들이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시고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여호와께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나 것입니다.

그런데 금 기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한 진액, 곧 주의 핏입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물이 피되게 하고, 그 피는 감람나무 원체를 따르는 성도들이 마시고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계11:6) 이것이 곧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속13:1)이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생명수”(계22:17)입니다. 그

리고 감람나무가 나타나 이 생명수를 못사람에게 값없이 마시게 할 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 온다.”(호14:7)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나타나면 사람들을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는”(속3:10) 것처럼 말입니다.

두 감람나무의 원체는 마치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다림줄에 의해 직통으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에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이 곧 감람나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은 편의상 감람나무의 한 상징적인 비유로 내세운 존재에 불과하며, 문자 그대로 감람나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감람나무란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연결되는 존재입니다.(계11:3-4) 그는 주의 증거자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책을 받아 보시고 감람나무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세우시기 위해 이기는 자를 원하셨던 것입니다.(계2:7) 일곱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부탁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이긴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스룹바벨의 손에 쥐어진 다림줄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한 것처럼, 이긴자, 즉 감람나무의 사명을 맡은 자도 그 손에 권능을 받아서 주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의 사명을 맡은 자는 그 손으로 못사람에게 축복하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는 것입니다.

## Chapter 27.

# 흑암 속의 빛



### 1) 주님의 시련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신 사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셨는지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나 손수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대패로 미는 일을 해 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된 일은 물론 여호와께서 시키신 것이지만, 인생의 앞뒤 골목을 손수 다 겪으면서 아니꼬운 일들을 한두 번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루를 고쳐 주고, 때로는 책상을 만들어 주고서도 품삯을 제때에 받지 못하여 끼니가 다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된 시대와는 달라서,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톱으로 일일이 썰어 판

자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대패로 밀어 적당한 용도에 쓰곤 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저야 할 몸인 것을 잘 알고 있던 주께서는 못질을 잘못하여 망치로 손을 다치거나 하면 그 상처에서 스미어 나오는 피를 보고 불원에 무더기로 흘러야 할 당신의 피를 연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가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당하리라는 것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백 년 전에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주께서 어떻게 당하리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으며, 주께서는 이 성경을 읽기도 하였습니다.(사53장 참조)

그러므로 설사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더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마음에 수심과 고민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여느 사람보다도 한결 늙어 보였습니다.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죽으리라는 것을 뻔히 내다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우리라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은 사형수였습니다. 설사 주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아실지라도, 그 수모와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형이라도, 단두대 위에서 잠깐 괴로움을 당하다가 곧 숨을 거두는 것 같은 사형이거나, 전기의 자 위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저승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형이라면 또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해야 할 처형은 십자가의 사형입니

다. 사형수들은 나무형틀 위에서 갖은 쓰라림을 당하며, 며칠을 신음한 끝에 비틀어 메말라 죽도록 하는 그런 잔인무도한 사형법이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사생활을 마친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괴로움 가운데 시련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려’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록 당신의 독생자라 하더라도 사생활을 하시던 30년 동안은 별로 이렇다 할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나, 성령을 주신 다음부터는 앞으로 3년 동안 직접 부리실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광야로 불러낸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으니,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찾지 말라.”고 당부하고, 동생들에게 집안 살림을 부탁한 다음 집을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야인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새소리며 들짐승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못 감개가 무량하였을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류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주님도 40주야 금식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류하여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절차와 방도를 지시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가 되어야 당면한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도 당신이 재림할 때를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

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장차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가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40주야라는 시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당면한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 광야에서 하늘과 땅 사이를 영적으로 오르내리면서 여호와와 상세한 지시를 받고, 또 모든 연단과 마귀의 시험까지 물리치고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온 세상의 권세와 온 하늘의 권세의 대결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과 주님과와의 교류를 어둠이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관복음의 기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각자 주님의 간증을 듣고 기록하였는데, 받은바 은사와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이 성신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결코 완전무결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호와나 주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도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말은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도록 맡겼던 것입니다.(요

16:7-8)

성서적으로 제일 깊이 들어간 것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린 관계로 주님의 귀여움을 받아 주님을 제일 가까이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와 베드로는 예수보다 나이가 많아 자연히 거리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께서 맨 처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한 큰 성으로, 주께서 나사렛에서 떠난 후 꽤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안드레나 야고보, 마태, 요한 등은 모두가 이곳 출신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주님에 대하여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마4:19) 하니 곧 따른 것 같지만,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라고 한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히 기록하기 위해 그렇게 쓴 것으로,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연과 상당히 긴 시일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가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몸소 바다 위를 걸어서 본때를 보여 줘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한 제자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곳을 처음 전도지로 정한 것은 하늘에서 이미 주님의 말이 상당히 먹혀 들어갈 것을 알고 지시한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일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기까지는 자기를 남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영수가 사회에서 아무렇게나 산 것 같지만, 몸은 비록 어느 시궁창에 빠져 있더라도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느 하나도 예사로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긴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결단코 갑자기 주먹 구구식으로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갖은 시련을 당하면서 그때마다 앞으로 일을 할 때 무기로 쓰려고 날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버스를 탈 때나 혹은 다방에서 손님을 만날 때나 항상 주의 성령은 나를 지켜 주셨고, 나 역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주님을 중심 삼아 기도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밤이면 주께서 이상 중에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깊은 내막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보여 주시곤 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하루 저녁도 외롭게 지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주님은 성경에 미리 당신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성경의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외친 첫마디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도 맨 처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베드로도 120문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신을 받고 나서 외칠 적에 제일 먼저 한 말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때가 임박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여건이 갖추어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 세레 요한

주님은 이때부터 12제자를 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주님의 주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세레 요한은 계속 물세례를 주고 있었으며, 베드로나 요한은 세레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마디 던지자 그물을 내동댕이치고 금방 따랐다면 베드로는 세레 요한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생계를 이어 가는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리가 없습니다.

세레 요한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자기 입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출발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증거는 다른 유력한 인사가 해 주고 장본인은 시인하는 형식이 되어야지, 자기 입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할 뿐더러, 또 그 말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 엘리야의 영, 곧 세레 요한을 땅 위에 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이 이만저만 고갈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전혀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약시대에 모세에서 시작하여 선지자나 사사(士師)를 계속 보내 주어 공백이 별로 생기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 같이 긴 공백기가 생겼으므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암흑시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하늘의 일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물세례를 줄 적에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가문으로 보나, 위풍으로 보나, 그리고 언변으로 보나 당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증거하고, 곧 자기로서는 신들메도 풀 수 없는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예고하자 그들의 가슴은 더욱 부풀어 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라면 교권을 손에 쥔 사람으로, 신앙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세도가 대단하였으며, 따라서 백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하긴 여호와께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지체 높은 집안에 태어나도록 섭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 예비자로서의 그에게 사람이 많이 따르게 하여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믿음직스럽게 못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주님처럼 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불과 몇 안 되고, 또 그의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시아의 증거가 흐  
지부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 높여 외치  
면서 물세례만 주었을 뿐, 별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는데도(요10:41)  
사람들이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 것만 보아도  
그의 가문과 지위와 비중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개하고 하  
나님을 보다 충실히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 나라를 되찾  
아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  
한의 입에서, 자기 뒤에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 못할 진짜 메시아  
가 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응당 세례 요한보다도 메시  
아는 월등 높은 가문에서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제수를 아내로 삼은 헤롯왕의 비행을 직접 규탄할 정도  
요, 감옥에 넣은 후 왕이 그의 목을 자를 수밖에 없게 되자 몹시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올 메시아의 신들메도 풀 수 없다니, 사람들은 곧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하여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로 생각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즉 그  
들 앞에 메시아로 나타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나사렛 동네의 목  
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정신 이상이라도 걸리  
지 않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구세  
주로 따른 것은 비천하고 무지한 가난뱅이나 병자 정도이고, 소위

내로라하는 자들은 다 외면하였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 고로, 즉 그들이 바란 것은 육이지 영이 아니었으므로. 이른바 상류층 사람들은 모두 외면하였기 때문에, 사공 베드로나 세리 마태와 같은 당시에 바닥에서 첫손에 꼽히는 자들이 사도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변두리서부터 하늘의 도를 전파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 3) 전도

그럼 예수를 외면한 권세 있고 돈 많고 유식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로 몰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끝까지 주님을 강력히 증거했던들 이들은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탄소리를 한마디 던지는 날이면, 그렇지 않아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던 주님은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그냥 두면 여호와와 뜻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호와와 세례 요한의 신변에 변화를 일으킨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못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눅4:14-15)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회당에서 이를테면 부흥사의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미리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단상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별로 힘들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여 당신의 위치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비교적 순조롭게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쳤으며, 많은 사람들로 부터 칭송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에서 귀가 아프도록 미리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 놓은 다음에, 당신이 30년 동안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며칠 전부터 예수가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목수가 부흥 강사로 사방의 회당을 우레와 같은 갈채 속에 누비고 다녔으므로 그런 소문이 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문짝을 짜 준 일이 있고, 어느 집에서는 마루를 깎아 주는 등, 집집마다 거의 다 주님의 손길이 닿았던 것입니다.

단상에 올라간 주님은 당신이 자라나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 61장을 펴시고 1절부터 읽어 나갔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눅4:18-19) 여기까지 읽어 나가신 주님께서서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더니, 주님을 향해 공격의 화살이

날아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성경 말씀이 자기를 가리킨 것이라니, 거 무슨 허튼소리야?”

하긴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도 이 이사야 61장의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것이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선지자라도 자기의 분야밖에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자기 동네에서 톱질이나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사람이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 성경 구절을 들춰내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라니, 누가 곧이들겠습니까? 예수가 이들에게 아주 낮은 사람이라면 또 모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요1:44)는 말 그대로입니다.

#### 4) 귀 있는 자

주님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저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가 만일 메시아라면,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박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오늘날 로마의 압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명은 그런 데 있지 않고, 더욱 원대한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열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면 누구나 - 예수 이전에 죽은 사람이나 이후에 죽는



사람이나 – 주님이 당신을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놓여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요14:6)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고작 제2의 모세 정도로만 알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 큰소리를 팡팡 치니, 납득이 갈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만 해도, 그들은 그 뜻을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거기에 나오는 ‘포로 된 자’란, 죄의 사슬에 묶인 자를 가리키며, ‘눈먼 자’란 성경 말씀을 보고도 모르는 자를 뜻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이런 대목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성경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도를 가르칠 때, 맨 처음에 부딪친 벽은 실로 상대방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는 속으로 크게 한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기 쉬운 비유를 들어 설득에 나섰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주님은,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잘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요3:12)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가르침이 상대방에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므로, 주님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병을 고치는 권능을 보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주님의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죄에 매인 자를 풀어 주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지만, 사람들이 받

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귀의 괴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병을 고친다고 꼬집기도 하였습니다.(마12:24) 그러나 주님의 주위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된 동기의 하나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하여 하고 싶은 말씀도 다 못하시고, 당신의 능력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설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과 인간이 교류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권능을 갖고 있어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권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자주 삼입한 이유도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신령한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없고, 듣는 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귀가 활레 받지 못한 자라고 책망했습니다.(렘6:10)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귀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 Chapter 28.

# 부활에 대하여



### 1) 인자의 고민

일찍이, 말씀으로 여호와와 동등한 위치에서 창세의 대업에 동참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 여호와의 크신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당하며, 그 결과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주님은 때가 되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가난한 목수의 집에 나셨으니, 이것이 곧 주님의 초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하늘의 영체도 일단 죄인의 몸을 갖고 육신을 입게 되자 인간으로서의 모든 요소, 심지어 약점까지도 아울러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기도도 해야 하고, 굶으면 시장하시고, 슬프면 눈물까지도 흘리는 인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앞둔

주님은 결코 마음이 평탄치 못하였습니다.

목수 일을 하시면서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의 생계까지 떠맡으면서부터 주님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당신이 언제 어떻게 죽으리라는 것을 환히 내다보고 계신 주님은, ‘내가 과연 죽음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까?’, ‘마귀의 큰 세력이 닥칠 때 무난히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날짜까지 받아 놓은 사형수로서의 주님은 심신이 아울러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며, 30세 남짓한 젊은 나이에 이미 50세 쯤 되어 보였던 것입니다.(요8:57)

주님은 당신이 젊어져야 할 십자가의 숨은 의미와 여호와의 깊은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트기 위해서는 당신이 불가불 산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사생활에서 벗어나 공생활에 접어들면서, 얼마 안 되어 맞이할 죽음을 앞에 놓고 착착 당신의 일을 해 나가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혹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조금씩 언질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육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들은 주님의 심정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솔직히 다 털어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떨어졌을 것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주님의 죽음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

우고 주께서는 일을 차츰 제자들에게 분담시키고, 당신은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다시금 굳세게 하는 한편, 육적으로도 되도록 십자가 위에서의 괴로움을 줄이고 빨리 운명하기 위해 오랫동안 음식을 거르셨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닥쳐왔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몹시 괴롭고 슬픔에 가득 차(마26:38) 그들에게서 잠시나마 위로를 얻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심정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만큼 주께서는 약해지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26:39)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며, 이것을 피했을 때 하나님의 경륜과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따라서 그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무리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그 기도가 입에서 새어 나왔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인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윽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주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용기를 얻어, “이 잔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마에서는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 하였습니다. 이것

은 인류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죽음과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완전히 죽음을 받아들일 각오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은 30년에 팔리고 십자가에 달리면 관원이 당신의 속옷까지 제비를 뽑아 나눠 갖게 되어 있는 것을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터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팔아 버린 장본인이 바로 가롯 유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므로, 평소에 당신이 자주 드나들어 유다가 잘 알고 있는 장소를 일부러 택하여 팔려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은 물론 얼마간 몰래 피신하여 죽음을 연장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몸소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 2)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섯 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워낙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기셨습니다. 여호와의 기쁨은 말할 나위도 없고,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편 마귀도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숨은 비밀, 주께서 죽음으로서 저들에게 크

게 불리하게 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통하게 울어야 할 판인데, 오히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네 복음서는 다 주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였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며, 각자 받아들이는 바와 개성이 다르므로 문맥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베드로를 통하여 마가가 들은 것을 기록한 것도 있고, 마리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먼 후일에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약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네 사람이 쓴 글이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일로 그만큼 신빙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께서 운명하신 당시의 광경을 이렇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27:50-53)

주께서 전신의 피를 다 쏟고 운명하시자 사나운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치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더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죄인을 위해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로 지내던 성소의 제사는 주님이 드린 피의 제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음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본 이상에,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가 많이 일어나는 광경이 보였습니다.(마27:52) 이것이 곧 첫째 부활이며,(계 20:4)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사사들은 죽었다가 이때에 부활하여 주님을 따라 승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계5:9) 따라서 모세를 비롯하여 아브라함, 다니엘, 호세아, 스가랴 할 것 없이, 모두들 이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순교자 및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의로운 자와 함께 나중에 펼쳐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압력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권세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사사, 순교자 이외의 사람이나 신약시대의 순교자, 또는 살아서 인침을 받는 성도 이외의 사람들은 다 이루어지지 못하여, 생명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음부에 가서 기다렸다가, 심판 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되, 왕의 반열에는 서지 못합니다.

앞에 인용한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마태가 이상 중에 이 장면을 영적으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자던 자가 깨어나던 광경은 마태가 120문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본 계시이며, 이것을 마태가 복음을 기록할 때 삽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멀리서 바라보던 마태는, 햇볕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는 소란 중에 무덤에서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보여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면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내용이 아니고 음부에 끌려간 영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업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된 것이고, 주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광경을 본 것이, “성도들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마27:53)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라 함은 지상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를 질 때 무덤에서 자다가 일어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광경을 마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4복음 중에도 마태만이 기록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광경을 본 자는 마태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위치에 있는 주님의 제자이므로, 주께서 이상 중에 계시로 보여 줬던 것입니다.

### 3) 주님의 무덤

주님의 장례는 일찍이 주께서 땅 위에 생존해 계실 때 공회원으로 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손으로 치러졌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는 니고데모처럼 위신상 주님을 숨어서 남몰래 믿어 온 사람으로, 그가 주께서 운명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자 총독은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전신의 피를 다 쏟고 목이 타서 죽게 되자면 며칠씩 걸리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몇 시간이 안 되어서 시체를 달라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독은 백부장을 시켜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강도들은 아직 시퍼렇게 살아서 몸을 뒤틀며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의 시체만 십자가에서 내릴 수는 없는 일이므로,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 곧 죽게 한 다음, 세 사람의 시체를 동시에 내렸습니다. 두 강도는 주님이 일찍 운명하신 덕분에 그만큼 고통을 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다리뼈를 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요19:36, 시34:20) 유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고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출12:46) 이때 육을 벗어난 주님은 당신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광경이며, 그 밖에 당신의 시체를 다루는 모습을 환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시체에 몰약, 즉 방부제를 바르고 정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마련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주님의 시체를 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이 독실하고 의리도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달면 삼키고 쓰면 뺏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부자요, 출세하여 총독도 마음대로 대면할 수 있던 사람으로서 이만큼 성실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여호와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입김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사53:9)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생전에 존경하여 마지않던 스승의 무덤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던 날에 비로소 주님의 무덤을 찾게 된 것은 그 중간에 안식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주께서 처형을 당한 골고다에서 조금 떨어진 양지바른 곳이었습니다. 무덤 속은 작은 동굴로 되어 있고, 복판에 돌로 된 받침대가 있어 그 위에 시체를 안치하게 되어 있으며, 주위에는 몇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 눈앞에 이변이 나타났습니다. 무덤에 못 들어가게 막아 놓은 돌이 굴러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주님을 안치해 놓은 자리에는 세마포 옷만 남아 있고, 주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에 주님으로부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일이므로 귀 밖으로 흘러버리고, 으레 주님은 무덤 속에 그대로 누워 계실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눈같이 흰 옷을 걸친 두 천사가 곁에서 있었으므로 여인들은 더욱 놀라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벌벌 떠는데,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알고 있다. 그는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마28:5-7) 하는 것이었습니다.

#### 4) 부활하신 주님

그럼 부활은 어떻게 하여 된 걸까요? 주님의 영이 여호와의 권능에 의해 주님의 시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초림 당시의 육을 입은 주님이 아니라 영체로 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지상에서 40일 동안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밤에는 옛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요20:19, 21:3) 낮에는 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눅24:31)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는 주께서 나타났지만 이들의 눈에 생전의 주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눅24:30) 그런가 하면 문이 잠긴 방 안에도 나타나시는 등 모습이 변화무쌍하고 거

취가 자유자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주께서 40일 동안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신 후, 승천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 놓고, 곧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터이니 땅 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행1:9-11)

주께서 부활하여도 종전의 육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승천할 수 없습니다. 또 주께서 육으로 다시 사셨다면 구태여 40일 동안이나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수고스럽게 증거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여러 문도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못 박혔던 자국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 주면서 그동안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면 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은 변화된 영체이므로 혹시 무슨 유령으로 알까 봐서 손수 고기도 먹어 보이고, 손바닥도 만져 보게 하면서 40일 동안이나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느라고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아니지만,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주고 영광 중에 말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영체로 화하였으므로 옷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을 때에도 현재의 몸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홀연히 변화하여 영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매우 신비롭게 들리지만,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세포 조직은 레이저 광선이

비치면 변화하여 한 줌 연기로 화하여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그 위력은 레이저 광선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뜻을 이루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육적 장막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때 홀연히 변화되는 것도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란,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사는 것과는 판이합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기는 했지만, 옛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으므로 다시 죽어야 할 몸입니다. 만일 부활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면 하늘에 오르지도 못하지만, 설사 올랐다고 하더라도 머리도 꺾고 화장실에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신진대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체로 승천하신 주님은 영체로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때 살아서 주님을 맞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홀연히 변화하며, 오늘날 우리가 갖은 고생을 참고 견디면서 애쓰는 첫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어도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로 동화와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입증하는 하늘의 원리입니다.

## 5) 인류의 소망

구약의 주인공인 주님이, 일찍이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하늘의 도를 전하시고 십자가를 저야 하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승을 육적으로만 보고 영의 세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잃은 그들은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따르던 자기 목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기지 않았으나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누워 계시던 자리에는 세마포 옷만 놓고 주님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훑쳐 갔는지, 아니면 정말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수제자의 신앙 자세였으니, 그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되어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즉 여기서도 주님을 만나 보았다, 저기서도 주님을 만나 보았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나는 낮에 예수를 보았다, 나는 밤에 보았다 하고 쭈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가운데는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사실일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유령이 아닌가, 하고 의견들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영체로 화하여, 사흘 전의 주님과와는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수고스럽게 제자들에게 간간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종전의 모습대로 나타나 보이는 이적을 행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사흘 전의 주님은 육의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을 닮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마와 같은 제자는, “나는 살아나신 예수의 손바닥을 만져 보고 쇠뿔이 박힌 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지 못하겠노라.”(요20:25)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 친히 손바닥을 만져 보게 하시고,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요20:29)고 타일렀던 것입니다.

한번은 제자들이 너 나 없이 무서워 문을 닫아걸고 모여 앉아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 숨을 획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요20:23)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유사 이래 없던 큰 권세인 사죄권과 정죄권을 아울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자를 건지는 특권으로,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권세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커다란 소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인간과 같은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이게 하시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행1:8)는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구름이 주님을 가려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두 천사가 나타나 주님은 하늘에 오른 그대로의 모습, 즉 영체로 다시 오신다고 전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주님을 잃은 제자들과 그 밖의 문도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위로하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예배를 보면서 울적한 마음으로 지내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이들 문도의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주님의 존재와 그 심정을 분명히 알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난날의 불찰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눈물 뿌려 통회하는 한편, 담대하게 나가 주의 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열렬한 성령의 역사는 실로 이들 120문도들의 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기독교가 오늘날 전 세계에 전파되는 터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당신의 종을 들어 쓰시며, 땅에서도 하늘의 뜻을 받들어 보조를 같이해야 합니다. 즉 하늘의 뜻과 땅의 움직임이 합작이 잘되어야 하며, 땅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이 손발이 잘 맞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모든

것을 척척 해치우실 텐데 무슨 소리냐?”고 단순하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새 하늘과 새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권능이 마귀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섭리를 정하셨는데, 이것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령, 왜 꼭 의로운 자의 수가 14만 4천이 차야만 하나님께서 천년세계를 이루게 되느냐, 하고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호와께서 미리 예정하신 조건이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일만 이천 명씩, 14만 4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왜 하루를 20시간으로 정하지 24시간으로 정했느냐고 항의할 수 없듯이, 왜 하늘 군병의 수를 여남은 사람으로 하여 얼른 천년세계를 이루어 버릴 일이지, 그렇게 많은 숫자를 채우느라고 그 고생이냐고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경륜 자체가 숫자적인 조건 위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은 기독교의 3대 진수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이 인류에게 주는 의의와 그 귀증성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불원에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게을리 말아야 할 것입니다.

## Chapter 29.

#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 1) 멜기세덱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창14:17-

20)

나는 지금까지 몇 달 동안에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은 다시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대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영의 깊은 단계의 말

씀인 멜기세덱에 대하여 다소 언급한 것은 다윗과 히브리서 저자 정도였습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고 할례를 통하여 피로 언약을 맺은 가운데 그 후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고, 이들을 통하여 크신 경륜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멜기세덱이라는 실존 인물은 아브라함 당시의 살렘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거물인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고 십일조까지 받았다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렘 왕이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과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이런 지위의 서열이나 고하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중에 나타날 두 감람나무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 당시에 실존한 인물이지는 하지만, 나중에 나타날 어떤 존재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메시아, 즉 주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히7:2-3)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육적인 것으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이루어지고, 그 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많은 선지자와 사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활약하였으며, 다윗의 후예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남으로써, 그 길 예비자 세례 요한 때에 와서 과거의 법도와 율례가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순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끝나고 새 언약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멜기세덱의 반차에 이르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피로 비유하고,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였으며, 이 살과 피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이긴자를 통하여 생수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계21:6-7) 메시아,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의 그림자로서의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십일조를 아브

라함에게서 감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와 같이 메시아의 그림자로 행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말씀’으로 계셨으며, 이것을 구약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깊이 들어간 다윗이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 여호와는 맹세코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사110:3-4)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이란,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하여 권능으로 멸하는 것을 말하고, 주의 백성은 하늘군병을 말하며, 거룩한 옷은 세마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즉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도달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와 그 밖의 당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에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교인들이 트집을 잡는 판이라,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야만 비로소 길이 열리는 멜기세덱 운운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깊은 단계의 말씀은 나중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이야기를 보류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히5:11)

주님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든 말든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만일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냥 승천하였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은 엄연히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의 아들로 족보가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족보가 없는 분, 즉 멜기세덱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 2)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의 직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으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의 경우처럼 그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대를 잇는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처음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은 모세의 형 아론으로, ‘아론의 반차’란 말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히9:6-7)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좇는 레위 자손 중에서 뽑힌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그 죄상에 따라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

면 그 제물의 피만큼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제사장이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물이 있는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볼 수 없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히7:11) 따라서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 그 제사가 하늘에 상달된 후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고, 다른 희생의 제물을 폐하는 동시에 인간이 직접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레위지파에 속하는 자들로, 뽑힘을 받아 약 1,400년 동안 역사해 왔으며, 멜기세덱의 반차는 주님이 믿는 자들 중에서 뽑아내시는 역사를 약 2,000년 동안 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들은 앞으로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제사장 노릇하게 되지만,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들은 당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조상 아브라함보다 작은 존재였으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반차’란 반열, 즉 순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믿는 자들 가운데 뽑힘을 받은 진실한 자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참여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 반열에 이르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



에는 이 반열에 참여하는 사람을 씻어서 세우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일은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와 같은 열성적인 성도도 베드로의 손길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 주게 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그가 귀한 것입니다. 더구나 주께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바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긴자가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실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2장, 3장 참조)**

### 3) 위대한 경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세요, 그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숭상하는 법도이며,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이 생기면서 레위 자손인 역대의 제사장들은 이 아론의 반차를 좇아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직분을 맡아 왔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율법의 조상은 모세이며, 제사장의 조상은 아론으로, 이들 중에서 굳이 서열을 구분하자면 아론보다도 모세는 더 큰 존재이며, 모세보다도 아브라함은 더 큰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상징적인 인물로, 모세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을 통하여 여호와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세 가지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율법과 제사는 믿음의 3대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 이 믿음의 3대 요소가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이며, 이것은 세 사람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죄를 씻는 보혈을 흘릴 수 없고, 보혈을 흘리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보혈, 부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 즉 맴기세택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언제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구원의 원리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처음에 돌에 새겼으며, 제사장들이 읽어 주면 듣고 외워서 지켜야 했지만, 신약시대의 율법은 마음과 생각에 새겨 스스로 간직하여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히8:10-11) 그런데 구약시대의 모든 율례와 법도는, 따라서 모세의 10계명도, 세례 요한 때까지 유효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11:13) 그럼 세례 요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이랬다저랬다 하십니까? 거기에는 당신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즉 만유를 회복하

여 새 역사와 새 나라를 이룩하려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당초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이들을 통하여 이 뜻을 이루려고 이들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매인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갈3:10)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할 것 없이 다 저주 아래 있으며, 죽자마자 곧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음부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구태여 그런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을까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온전케 할 수 없으며 신앙 시대에 가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릴 율법을 지키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못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런 해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가짐을 단속하여 신앙 자세를 바로잡아, 결길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상징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사장을 통하여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드려도 육의 허물은 어느 정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영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법도와 율례가 온전치 못할 뿐더러 제사 드리는 제물, 즉

송아지나 양의 피가 깨끗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 자신도 죄에서 놓여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죄에서 완전히 놓여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그 밖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욘15:14)라고 말한 것이 때문입니다. 아님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두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주의 피로 제사 드리는 신약시대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하고, 온전한 것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체는 하나님의 깊으신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며, 따라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매어 저주 아래 있는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심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자유의 율법’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의 제사를 폐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의 제사로 대체시킨 것입니다.

#### 4) 영광에의 길

히브리서에서도 주위 사람들이 “젓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히5:12)이라 상제히는 이야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달라짐과 때를 같이하여 불완전한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 까닭을 대충 설명하였습니다.(히7:11 이하 참조) 그리고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므로 폐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히7:18-19)고 덧붙여 말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견해를 달리하였습니다. 그는 성신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매우 소박한 목회자였으나, 바울은 말씀으로 다듬어 세워 믿음을 튼튼히 다져 가는 목회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서도 폐지된 모세의 율법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마치 양복을 입고 갓을 쓴 격이라고 하겠습니까.

하긴 베드로 이후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여전히 숭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령을 받아 율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와 연결되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율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며,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이 율법이 더욱 세밀히 기록됩니다. 그리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약2:12)

반대로 마음과 생각에 율법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연

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자유의 율법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갈3:24) 주께서 율법을 더욱 온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마5:17)

그러나 일단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율법, 즉 자유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와의 예정하신 뜻이며, 이 뜻 가운데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설사 본의 아닌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은혜 받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즉 기쁨 부음을 받아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크게 둘로 나눠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와 율법 아래 있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나, 그렇다고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나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고 빼냄을 얻어 진실하게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성도와 순교한 자 및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일어난 구약시대의 선지, 성인들, 도합 14만 4천 명이 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 Chapter 30.

# 내가 걸어온 발자취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이 길이 참 길이라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자리를 같이하여 이처럼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이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 역사는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던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다만 말씀만 전했을 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맡게 되어 단에서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지, 그 경위와 사연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내가 지난날에 걸어온 발자취를 잠깐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내가 손쉽게 남달리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이며, 결코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백 사람이 다 칭찬을 해 줄지라도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앉은 자라면 주님 앞에 서는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를 얼마나 착실히 믿느냐 하는 척도는 외형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속사람이 여호와를 얼마나 간절히 찾아 의지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기독교에 몸담은 것은 열여섯 살 때의 일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역질이 나도록 보기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꼴이 해괴망측한 것을 여러 번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경북 김천에서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중풍환자로 고생해 오는 가운데, 하루는 박태선 장로가 무슨 병이든지 척척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식구들을 따라 나도 교회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때 나는 아버님 병만 고치면 교회는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나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내가 앉아 있는 마루가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몸까지 화끈거리기에 이상하여 손으로 마루를 만져 보았더니, 내 옆에 앉은 사람의 마루는 찬데 내가 앉은 자리는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 코에서 갑자기 분냄새가 나기에, 어떤 여자가 분을 바르고 온 줄 알고 사방을 둘러보



았는데, 주위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상하구나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슨 영문인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 왔으며, 점을 치러 갔더니 서울로 이사 가라고 하기에 김천에서 서울 전농동으로 셋방을 얻어 이사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데 하루에 만 원, 이만 원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산은 탕진되고, 심지어 내가 갖고 있던 책까지도 팔아먹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조금도 차도를 보지 못하고, 어머니와 형과 나 그리고 어린 동생 다섯을 뒤에 남겨 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앞으로 살 길이 캄캄하여, 예수가 있다면 먹고사는 길을 열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교회에 나가 우리 식구가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 허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아비 없는 자식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전하기 위해 이모 댁에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네가 어디서 아버지를 찾느냐? 네 아버지는 하늘에 있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솜털만 한 구름들이 여러 점 보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별일도 다 보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터에 나가 벽돌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게에 벽돌을 지고 하루에 50회 내지 60회씩 나르면, 저녁에 일당 700환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루 700환씩 받는 품삯에서 십일조를 떼고 식구들의 입에 풀칠을 할 봉지쌀을 사고 나면 버스 값도 남지 않아,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줄곧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늘 배가 고프지라, 길가에서 구워 파는 국화빵이 그렇게 먹고 싶어도 한 번 사 먹어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남의 심부름을 해 주고 과외 돈이라도 생기면 그대로 감사 헌금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갚아 주시겠지 하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적은 물질이나마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바쳤던 것입니다.

하루는 내가 우연한 기회에 장화 하나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 장화는 나보다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에게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어머니더러 담당 전도사님에게 갖다 드리게 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매우 흡족하였습니다. 갠 날이나 굶은 날이나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전도사님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도와 드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느 날, 나는 여전히 다 떨어진 운동화를 질질 끌며 질퍽한 길을 젖어서 지나가다가 문득 장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 장화를 내가 신는 건데...’ 이런 생각

을 하다가, ‘아니지, 나는 혼자 몸이지만, 전도사님은 공적인 구령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속으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온몸을 덮치는가 싶더니 향취가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구나!’

어느 날 나는 어떤 우연한 인연으로 자유당 중앙당에서 사환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당대의 정계를 주름잡던 정치가들을 가까이 모시고 심부름을 하는 가운데, 어린 소견이나마 정계의 이면을 기웃거리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자결한 이기봉 씨의 관에서 새어 나오는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 그 관을 내가 손수 메고 갈 때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자유당이 망하여 룬펜이 된 나는 학교 정문 앞에 앉아 학용품 행상을 하였습니다. 한번은 학교가 파하여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던 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시궁창에 빠졌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졸다가 눈을 떠 보니 머리 위에서 아이들이 떼를 지어 내려다보고 놀려 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일어나 물건을 대충 챙겨 가지고 집으로 와 버렸습니다. 버스 속에서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데, 단상에서 난데없이 웬 이슬이 자욱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은혜의 연결을 받

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몰래 기도하다가, 그것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이마로 땅바닥을 짚어 가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계속해서 간구하는 힘이 생기면서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나만 은혜를 충만히 받을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나, 일터에 가나, 길을 가나, 때로는 논두렁 같은 데서 풀을 끌어안고 모기가 무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리기를 한 주일쯤 지나서 교회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내 몸에 이슬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주야장창 은혜가 계속 연결되는 가운데, 스물한 살 되던 해에 전도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는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을 속으로 몰래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의동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일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라야 초가지붕으로 된, 다 쓰러져 가는 움막 같은 곳인데, 교인이 대여섯 명밖에 없었습니다. 냄새나는 노래기 벌레가 어떻게 많은지, 새벽에 눈을 뜨면 두어 삼씩 퍼내는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는 어렸지만, 내가 단상에서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저마다 여간 감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세가 날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한편 나는 나대로 성경 말씀을 증

거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기 위해 지혜와 충명을 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설교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단에 섰을 때 한 번도 냉랭하니 은혜가 막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단에 서는 곳마다 인기가 좋고 교회가 부흥되어 다른 목회자들이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모략중상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과 교류는 더욱 빈번해지고 긴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막연하나마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색은 일체 하지 않고 감춰 왔습니다.

나는 갖은 모략과 중상으로 목회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주님 앞에 그 딱한 사정을 고하여 주님으로부터 위로의 암시를 받고는 드디어 단에서 물러났습니다. 나는 식구들과 떨어져 중암동에 독방을 얻어 하숙하고, 호구지책을 강구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궁리를 골똘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즉 내가 단에 서기만 하면 시기와 질투로 언제 밀려날지 모르니, 내 돈으로 교회를 새로 지으면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을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익히지 못하였으니, 천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가 타고난 소질이 있는 연예계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벽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명색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 오던 사람이, 또 앞으로 더욱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이런 세계에 발을 들여놓아도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망설이던 끝에 달리 어떻게든 해 볼 도리가 없으므로 부득이 이거라도 해 볼까 하여, 내가 전에 시무하던 인천의 몇몇 성도님들과 상의하였습니다. 즉, 돈 좀 왕창 벌어서 교회를 지으려면 연예계에 투신하는 길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전도사님께서 어렵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좋도록 하시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말썽 많은 연예계 진출이었습니다. 동료 전도사이던 김해성 씨와 함께 조그마한 레코드 회사를 차리고, 레코드에 직접 취입하는 한편, 영화에도 나가 주연을 맡아 보았습니다. 그러니 회사를 운영하랴, 노래를 취입하랴, 영화 촬영에 나가랴, 직원 월급 줄 걱정, 광고료를 지불할 걱정, 해서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사망에서 수표가 부도나면 이것을 막으랴, 고생만 진탕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교회를 지을 때돈 번답시고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 얼굴에 먹칠만 하고, 여전히 생활에 허덕이는 가운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시간만 있으면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자 밤중에는 주님께서 그동안에 별로 느껴 보지도 못한 성령의 은총을 주시고, 한편 꿈에나 이상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보여 주시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상 중에 주님을 직접 만나 뵈기도 하였고, 하늘나라에 가 여호와의 사랑을 알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72년도에 주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즉 72년 2월 25일, 주께서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 보이더니, 내 머리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 중에 나를 찾는 자들이 있으니, 너는 그들을 건져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하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들이란, 은혜를 받은 후에 이를 쏟아 버리고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열심히 날아가다가 힘이 빠지고 날개가 쇠약하여져서 땅에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 독수리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저와 같이 현재 하나님의 역사가 쇠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 살펴보니 독수리의 날갯죽지가 부러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자상한 설명이 계셨지만,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자면 실로 끝이 없습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 주께서 나에게 보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일일이 수첩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적당한 기회가 오면 여러분에게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